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안 용 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

지도교수 장 한 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안 용 진

# 안용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30일



|    |       |         |
|----|-------|---------|
| 주심 | 교육학박사 | 원효현 (인) |
| 위원 | 공학박사  | 박종운 (인) |
| 위원 | 교육학박사 | 장한기 (인) |

# 목 차

## Abstract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    |
|------------------------------|----|
| 1. 학교폭력의 개념 .....            | 4  |
| 2. 학교폭력의 유형 .....            | 5  |
| 3. 학교폭력의 특성 .....            | 7  |
| 4. 학교폭력의 유형별 발생 요인 .....     | 11 |
| 5.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 .....       | 27 |
| 6. 유형별 대처방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 ..... | 31 |
| 7. 선행연구 고찰 .....             | 43 |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
|---------------|----|
| 1. 연구결과 ..... | 51 |
| 2. 논의 .....   | 99 |

### V. 요약 및 결론

|             |     |
|-------------|-----|
| 1. 요약 ..... | 112 |
| 2. 결론 ..... | 119 |

|          |     |
|----------|-----|
| 부록 ..... | 132 |
|----------|-----|

## 표 목 차

|                                          |    |
|------------------------------------------|----|
| <표 1>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1 |
| <표 2>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2 |
| <표 3> 최근 1년 동안 따돌림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3 |
| <표 4> 최근 1년 동안 따돌림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4 |
| <표 5>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4 |
| <표 6>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5 |
| <표 7>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6 |
| <표 8>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7 |
| <표 9> 최근 1년 동안 따돌림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8 |
| <표 10> 최근 1년 동안 따돌림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8 |
| <표 11>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59 |
| <표 12>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60 |
| <표 13> 학교별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 61 |
| <표 14> 학교별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 64 |
| <표 15> 학교별 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 66 |
| <표 16> 성별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 68 |
| <표 17> 성별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 72 |

|                                        |    |
|----------------------------------------|----|
| <표 18> 성별 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 75 |
| <표 19> 학교별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 대한 인식 분석 .....  | 79 |
| <표 20> 학교별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 81 |
| <표 21> 학교별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 84 |
| <표 22> 성별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 86 |
| <표 23> 성별 집단적 따돌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 90 |
| <표 24> 성별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 93 |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ways to cope with them.**

**Yong Jin An**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he conditions that bring about in-school violence, some of the typical causes of this violence, as well as student's beliefs about coping with cases of in-school violence. This aim of this study is to help students face the problem of violence by making them aware of the data in this survey, as well as preparing some basic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our students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onditions for violence in our schools, with reference to the type of gender at each school?

Secondly, what are student's beliefs about the typical causes of violence?

Thirdly, what are student's beliefs about the best way to deal with typical occurrences of violence?

The students involved with this study were chosen from 4 academic co-ed high schools and also from 4 vocational co-ed high schools in the city of Busa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brief are as follows:

Schools must implement a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with regards to in-school violence, as well as more strictly apply their existing regulations on violence in school, focusing on boosting the pow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At the same time, schools must meet the problem of in-school violence head-on, and do their best to stamp out the causes of violence before they start. Schools should also prepare a protection system for the safety of those people who wish to report occurrences of in-school violence, lessening the risk of revenge attacks by the bullies involved.

Next, schools need to help students to face the problems of in-school violence 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reventative measures such as self-defense or the benefits of expressing negative opinions more positively.

Finally, the school must set up a student violence council to combat occurrences of in-school violence, offering a place where students can go to receive counsel easily, and where schools can see the results of their efforts through offering deep and meaningful counsel to their student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폭력 문제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학교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폭력이 상존하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밝은 성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고민해 보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복합적인 양상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적 가치와 사법적 정의가 충돌하기도 하며, 자식을 보호하려는 가해자·피해자의 부모들 마음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및 청소년 관련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여왔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대처 방안이 일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대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흥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인 대안을 마련했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시행도 부족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학교폭력 유형별 원인에 따른 대책들을 구분하지 않고, 폭력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책들을 일괄적으로 제시하여 왔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결과조사만 있었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의 인식조사는 아직 없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별(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이고 근원적으로 접근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학교별·성별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폭력 유형별(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부산시내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한 학교별 · 성별 실태 조사 및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이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 중 신체적 폭력 · 집단 따돌림 · 성폭력으로 한정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은 학생들의 인식 조사이다.

####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학교 폭력 유형 : 신체적 폭력 · 집단따돌림 · 성폭력에 한정한다.

나. 유형별 발생원인 : 신체적 폭력 · 집단따돌림 · 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학생의 인식조사이다.

다. 유형별 대처방안 : 신체적 폭력 · 집단따돌림 ·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의 인식조사이다.

## Ⅱ. 이론적 배경

### 1. 학교폭력의 개념

폭력이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내적·외적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폭력의 개념을 정리하면, 사회적 의미에서는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과 재산과피의 일부를 말하며, 심리학적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주려는 의도를 말한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학교’와 ‘폭력’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즉, 학교와 연관된 폭력을 지칭한다. 그러나 ‘학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만 한정하면 학교 내부로 한정할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학교 주변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주변으로 확대 해석해도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로 정의할 것인가 등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면 그 누구도 명확히 정의하기 힘들다.

2004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금품갈취,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 2조에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경미, 2004, p. 46).

본 연구에서는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 주변 청소년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폭행·집단따돌림·성폭력을 학교 폭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 3가지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유형은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많다. 김준호(1996)는 학교폭력 유형을 신체적 물리적 폭력, 언어적 심리적 폭력, 금품갈취,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구분하였다 (pp. 18-37). 김연숙(2005)은 학교폭력 유형을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집단 괴롭힘, 성폭력으로 구분하였다 (pp. 17-20). 형사정책연구원(1997)은 학교폭력 유형을 괴롭힘, 금품갈취,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p. 40). 이강희(2001)는 학교폭력 유형을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심리적 폭력, 집단따돌림으로 구분하였다 (pp. 6-7). 이명자(2004)는 학교폭력 유형을 괴롭힘,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신체적 폭력, 성폭력으로 구분하였다 (pp. 9-11). 박상도(2001))는 학교폭력 유형을 괴롭힘, 금품갈취,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으로 구분하였다 (pp. 16-17). 차광수(2000)는 학교폭력 유형을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금품갈취로 구분하였다 (p. 8).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구

분이 명확한 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이란 법적으로 폭행이 해당된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1년 동안 나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주변 청소년으로부터 뺨·얼굴·머리 등 신체 일부를 맞거나 때린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 나. 집단따돌림

일본에서 이지메로 불리는 집단따돌림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퍼져있는 실정이다. 집단따돌림이라는 말은 학생들이 쓰는 은어에서 유래된 말로써 ‘최고의 따돌림’, ‘제일 심한 따돌림’을 뜻하는데 요즘에는 은따(은근히 따돌리는 것), 전따(전교생이 따돌리는 것)라는 용어도 등장하여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 1년 동안 나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선·후배 등, 두 명 이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거나 따돌림시킨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 다. 성폭력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범죄로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적 회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 1년 동안 나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주변 청소년 및 성인으로부터 성적회롱·가벼운 추행·성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 3. 학교폭력의 특성

#### 가. 집단화

집단화 경향을 들 수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룹을 지어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왜 이런 집단화의 경향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특징을 생각할 수 있다.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교우 집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나쁜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맛보려 한다. 그러므로 다른 아이들과 행동을 함께 하게 된다.

둘째, 군중심리의 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감히 어떤 비행을 저지를 수 없고, 집단의 일원으로서 한데 뒤엉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행동을 하게 된다. Lebon이 얘기하는 군중심리의 특징인 익명성·피

암시성·감염성에 의해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따르게 된다.

셋째, 개인의 주체성·자아정체성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독특성 상실이 원인이다. 주체성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행동하는 경향 때문이다 (윤진근, 2002, p. 19에서 재인용).

## 나. 난폭화

청소년들의 행동이 점점 난폭화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욕구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서가 나타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청년기 정서의 돌발성이 원인이 된다. 청년기의 특성을 Buhler는 부정기 또는 제 2의 반항기라 했고, 혹자는 행동의 중요성이 없는 시기라 하였다. 도 스텐 리 홀(S. Hall)이 질풍과 노도의 시기라 한 것처럼, 청년기에는 정서가 우발적이고 과격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행동은 난폭하게 되며, 조그마한 말다툼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큰 싸움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 또 이드(id)의 욕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충동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욕구의 충족을 지연시키는 참을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윤진근, 2002, p. 19에서 재인용).

## 다. 사회 범죄화

쉬운 말로 모방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물론 아동이 출생하여 성장·발달하면서 부모나 성인의 행동을 흉내 냄으로써 행동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습이라는 개념 속에는 좋은 방향으로 행동변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성인의 나쁜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 나쁜 방향으로의 행동변화가 이루어진

다.

청년기의 사회성 발달의 특징을 가리켜 Erikson은 주체성 대 역할 혼미의 단계라 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려 하여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특히 바르지 못한 성인이나 부도덕한 연예인들의 모방이 영향을 줄 때 문제가 된다. 음주·흡연·유흥장 출입·불순이성교제·도박·사기·공갈·협박 등은 특히 성인행동의 모방으로 일어나는 사안들이다 (윤진근, 2002, p. 20에서 재인용).

#### 라. 연소화 및 여학생 증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성숙도 빨라진다. 청소년 범죄도 차츰 연소화 되고 있다. 각종 보도자료 통계를 접하면, 의외로 여성의 음주·흡연·폭력 사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진근, 2002, p. 20에서 재인용).

#### 마. 다양화

이전에는 기껏해야 도박·패싸움·기물파손·거짓말·비속어·군것질·가출 등 몇 가지 사안만이 학교사태에서 문제시 되었으나 요즘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문명이 발달하고 대중매체가 널리 보급됨과 동시에 성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사회가 점점 복잡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변인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것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할 것임에 틀림없다 (윤진근, 2002, p. 21에서 재인용).

## 바. 우발성

다르게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이며, 예측할 수 없다는 말로도 표현된다. 정서의 불안정성이나 인내심의 결핍 등의 청소년기적 특징이 원인이 된다고 본다 (윤진근, 2002, p. 21에서 재인용).

## 사. 죄책감 결여

청소년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기 자신의 비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죽여 놓고도 죽은 사람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만 분개할 뿐 자신의 범행이 나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수 없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흔히들 윤리·도덕의식의 결여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 근원을 따지자면 그렇게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보다 심각한 사회 병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Freud의 성격이론에 의하면 정상인은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가 서로 잘 균형을 유지하였을 때라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이러한 현상은 초자아와 자아의 힘이 극도로 약화되고 이드의 힘만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윤진근, 2002, p. 21에서 재인용).

## 아. 우수학생의 증가

이전에는 학업성적이 불량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소위 문제아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츰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공부도 잘하는 우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많이 일으키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리고 지능이 높은 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면 극악성이 더 나타난다 (윤진근, 2002, p. 22에서 재인용).

#### 4. 학교폭력의 유형별 발생 요인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가해·피해 학생의 개별적인 차원의 특성,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비교육적인 사회환경 등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광준(1999)은 학교폭력 원인을 사회적 배경, 학교의 문제점, 가정에서 문제점, 학생 개인문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pp. 244-248). 민경두(2004)는 학교폭력 원인을 개인·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교육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pp. 8-13). 김진훈(2005)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pp. 9-13). 진영학(2004)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또래집단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pp. 15-23). 원명희(2002)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심리적 요인, 동료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pp. 36-48). 이강희(2001)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친구집단 요인, 학교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pp. 16-27).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원인을 폭력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체적 폭력에서는 개인(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고,

집단따돌림의 원인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고, 성폭력 원인에서는 가정요인·학교(또래)집단 요인·대중매체의 성문화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신체적 폭력

### (1) 개인·심리적 요인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개인·심리적 요인은 공격적 성격장애이다. 사람은 누구나 폭력행동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 자기 통제력에 강하게 작용하여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폭력적인 성향과 반사회적 행동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도 반성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은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이 작동하면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 같이 정서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서불안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생활에 대한 불신과 좌절이 거듭되어 가정·학교생활에 대한 의욕 상실의 생기는 것으로,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정서 불안을 학교폭력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서불안은 정서장애로 이어져 반항적·충동적·파괴적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또한 이들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지적 판단력이나 표현력도 부족하여 폭력을 휘두른다. 이들은 아주 작은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도하지 않

고 쉽게 폭력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다.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공격행동과 폭력행동으로 이어진다.

공격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은 자아기능의 약화, 욕구불만의 누적,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지각의 비현실성, 동기 유발의 결여, 목적의식 결핍, 발달과 부조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학교 내·외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이러한 폭력의 반복으로 인한 자학적인 자아상의 형성과 주변의 멸시로 인하여 결국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자기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약한 존재로 규정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 (김순식, 2001, pp. 9-10).

## (2) 가정적 요인

학교폭력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적 요인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가정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육성되어 가기에 가정은 가장 작은 집단으로 개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며 가정 내의 불만이나 그것들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나 도피가 폭력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대체적으로 핵가족 제도와 결손가정, 폭력적인 부모, 그리고 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볼 수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하면서 대가족제도에 비해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내용들이 양적으로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반해서 부모들의 사회적 활동의 양도 상대적으로 증대되어서 아이들에게 가정 내에서 가르쳐야 할 예절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윤리적인 인식 체계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결손가정이다. 요즘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결손가정이 증가되고 있다. 결손가정은 가정 내의 자녀교육의 주체자가 부모밖에 없는 현대의 핵가족 제도 내에서 자녀교육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녀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이러한 아이들을 더욱 따스한 관심으로서 대해주어야 하는 데, 자신의 아이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부부사이의 폭력과 자녀에 대한 학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대화보다는 폭력적인 방법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해결방안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고 그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긴다.

넷째, 부모들의 인식부족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단지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무시해 버리는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사고방식 또한 단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그로 인하여 인격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공부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반발적인 행동으로서 폭력을 행하게 된다. 또한 내 아이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과 자신의 아이만을 무조건 믿고 친구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생각들이 학생들의 사고를 해이하게 만들어, 학교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백운학, 1998, pp. 225-226).

여기서 우리는 학교폭력의 원인 중 가정 내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며 실제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자녀가 커가기에 많은 사람들은 건전한 가정을 꾸미는 데 가장 많은 투자를 하

고 있다. 건전한 가정은 건전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들이 애정에 의해서만 결속될 것이 아니라 이상과 가치관에 의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3) 학교 환경적 요인

학교는 전통적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지식과 인격을 겸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조직체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많은 문제점과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학교 환경은 시험성적에 의한 단선적이 인간평가, 창의성과 탐구적인 교육풍토 보다는 획일화 교육,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과 연계됨으로써 진학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제도화된 학교 내 수용된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학교폭력의 교육 환경적 원인도 매우 다양하게 세분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요인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문제를 들 수 있다. 진학을 위한 학력 중심의 교육현장은 인간성 교육을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은 학교 부적응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즉 무단결석, 중도퇴학, 등교거부, 진학실패 등으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무기력증 또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며 성격이 비뚤어진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지광준, 1999, pp. 246-247).

둘째, 입시위주의 시험체제이다. 학교교육이 시험을 준비하는 한쪽 방향의 교육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들러리 학생이 되고 소외당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진학·입시체제에서 가출, 장기결석, 퇴학, 학교폭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시험 준비 때문에 학생에게 가해지는 학생의 기대, 교사의 기대, 부모의 기대는 잔인하며 폭력적이다. 청소년기

는 심신의 발달, 단련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교육은 기억 중심, 암기 중심,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인간은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있다 (백운학, 1999, p. 226).

셋째, 정서·감성교육의 소홀이다.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심신이나 조화된 교육, 건전한 정서함양교육, 예절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오직 지식의 전수에만 충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학생들의 심신수련이나 건전한 정서함양, 가치관 형성, 예절지도 등의 정의교육이 소홀히 됨으로써 인간교육이 경시되고 있다. 특히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욕구를 발산할 기회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같은 고민을 가진 학생들끼리 서클을 조직하여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권위에 대항하는 폭력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권이중, 1997. p. 87).

넷째, 인간관계의 신뢰 결여이다. 입시체제문제, 교육과정문제,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인간적인 신뢰의 결여를 가져오고 있다 (권이중, 1997. p. 87).

다섯째, 처벌과 문제 중심의 생활지도에 원인이 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서 지도의 내용보다 지도방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 학생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생활지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 학생이 생기기전에 예방지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약한 청소년들은 더 큰 비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즉, 부적응 학생의 지도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사랑과 관심으로 감싸 안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윤진근, 2002, p. 18).

오늘날 학교에서 교사·학생 간에는 사회적 거리감이 있어서 마음과 마음의 교류나 인격적인 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바람직한 청소년 및 학생

지도의 최선의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따뜻한 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 환경은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만남을 가로 막고 있다. 또한 교우관계도 서로가 경쟁의 상대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진정한 우정을 쌓기가 힘들다. 청소년기는 교우관계가 심화·확대 되어야 할 시기이다. 왜냐하면 연령이 비슷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여 가정보다는 친구와 더욱 밀착되어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는 등 친구를 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4) 사회적 요인

가정과 학교 이외에도 청소년의 성장환경으로 접하는 곳이 사회이다. 사회는 아직 미숙한 청소년이 성인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 내딛는 새로운 환경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모든 사회적, 심리적 자극은 그들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도시화는 최근의 청소년 폭력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화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사회의 상대적 빈곤과 계층 차에서 오는 부모 권위의 무기력, 빈곤, 교육에서의 소외, 직업 및 생활수준의 심한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인 열등감, 다른 계층으로의 전환 시도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포기 등이 있다. 지역 사회 문제에서 오는 요인으로서는 유해환경·불량주택지·빈민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변동 및 가정의 고립, 공동체 해체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요인을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해체, 불건전한 광고 및 대중매체의 범람, 학교주변 유해환경, 청소년 비행을 방관하는 사회적 풍토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해체를 들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는 지

금까지 통용되었던 가치 체계를 변화하게 만들었고 가치관의 동요와 갈등은 학생들에게 적용곤란의 문제를 가져왔다. 물질만능주의가 만연되었으며, 정당한 질서의식이 정착되기보다는 권력과 부를 우선시하고, 편법을 써서라도 출세하고 보자는 한탕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의 규범을 지켜서 모범적인 시민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선하지 않고 규범적인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 교사, 친구 등과의 공동체적 유대관계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화로 인해 이러한 공동체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이 조직 속에서 소외되면 규범에서 벗어나 폭력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준호, 1996, pp. 18-37).

둘째, 불법적인 광고 및 대중매체의 범람이다. 소비 지향적이고 말초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불건전한 광고로 잡지의 지면이 채워지고 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및 컴퓨터 등은 청소년들의 폭력과 공격성향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들은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공격행위를 조장하여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폭력적 행위를 선택하게 한다. 이러한 대중매체에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외설적인 내용 뿐 만 아니라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마비시키는 내용이 곧잘 등장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김준호, 1996, pp. 18-37).

셋째, 학교 주변 유해환경의 문제이다. 학생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흥음식점·당구장·전자오락실·만화가게·비디오방 등을 들 수 있는데,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유흥비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와 폭행행사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이들이 즐기는 영상매체의 대부분은 음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고등학생의 대부분이 이러한 음란물에 접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컴퓨터 게임·CD롬 등도 음란 퇴색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인 영상 음란물에 더하여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한 음란만화·음란주간지·심지어는 공영방송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도 폭력물을 여과 없이 방영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받은 여러 가지 유혹이 결국은 불량학생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 재학시 일순간의 잘못으로 대부분 따돌림 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회에 적응코자 학교공부와 거리가 먼 일자리를 찾기 쉬운 주유소·음식점·호프집 등에서 일하면서 육체적으로 성인화가 되어버린다. 또 일이 끝나면 그네들끼리 모여서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며 폭주족이 되곤 한다 (전대양, 1994, pp. 233-255).

넷째, 청소년 비행에 방관 묵인하는 사회풍토가 문제이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신고정신의 부재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상당수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담해 본 상담교사들에 의하면 문제 청소년들은 그들의 폭력행위를 간혹 해보는 ‘모험’과 같은 행위로, 다분히 ‘장난기’가 어린 행위로 ‘자기들만의 문화에 안주하고 싶거나 이유 없는 반항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동기를 친구들이 폭력행사를 하기에 자기 또한 ‘비겁하지 않고 용기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안, 1996. p. 37).

다섯째,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여가시설이 없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를 즐기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별로 없다. 어쩌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생기면 약삭빠른 상흔이 먼저 들어와 퇴폐 향락적인 풍조를 부추긴다. 그래서 전용시설은 바로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p. 24).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보았을 때 단호하게 질책하고 깊은 이해로 상대해 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더욱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규범감각을 가르쳐 줄 우리사회의 ‘어른 부재현

상', '아버지 부재 현상', '선생님 부재 현상'이 가장 큰 문제이다.

## 나. 집단 따돌림

### (1) 개인적 요인

집단따돌림의 원인은 따돌림을 가하거나 당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용태(1997)의 연구에서는 따돌림 가해학생의 특성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아이, 질투심이 많은 아이, 싸움을 잘하는 아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공감능력이 부족한 아이이며, 따돌림 방관학생은 동료에 대해 무관심하며, 개인주의적이고, 학업을 우선시 하는 학생임을 밝히고 있다

(구자경, 2003, p. 334에서 재인용).

이규미(1998)는 상담실에 찾아온 따돌림 피해 내담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따돌림 피해 내담자들은 인지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관련된 경직된 비현실적 사고, 자기패배적 사고, 피해망상적 사고를 하며, 정서적으로는 분노·외로움·불안·우울·무력감을 경험하며, 행동적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절히 표현 못하며, 회피적 행동 혹은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규미 등(1998)은 상담사례를 통해서 따돌림 피해 내담자들의 태도와 대처행동을 살펴본 결과, 따돌림 피해 내담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나, 친구들이 놀릴 때 화장실에 가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무반응으로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며 막대기로 친구를 위협하는 행동과 같이 엉뚱하고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구자경, 2003, p. 334에서 재인용).

한준상 등(1999)은 집단따돌림 피해의 경우 학교부적응 및 친구 수와 상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적고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또한 친한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가해의 경우 불화가 많은 가정환경 및 비행경험과 상관관계가 많을수록 따돌림을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흡연·유흥업소 출입·폭행 등의 비행경험이 많을수록 친구들을 따돌리는 일에 많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경, 2003, p. 334에서 재인용).

김창대(1999)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집단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로서 낮은 주장성, 낮은 자존감, 지나친 타인 지각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잘난 체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로서 비사회적이고 잘난 체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 알미운 행동을 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건전한 개별화를 성취하지 못해 타인과 자신을 잘 분리하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관심이 많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았다 (pp. 11-12). 또한 김창대(1999)는 집단따돌림을 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역동으로써 청소년기에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 및 공격성을 집단에서의 약자에게 표출하는 경향, 자신이 따돌림 당한 경험에 대하여 보복하는 경향과 공감능력의 부족, 또래의 압력에 동조하는 심리 등을 제시하였다 (pp. 11-12).

이규미 등(2000)은 왕따외톨이 집단, 외톨이 집단, 비외톨이 집단에 따른 심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왕따 외톨이 집단과 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에 비하여 공감성과 주장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인 내담자들이 타인

의 갈등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등의 공감능력이 또래들에 비하여 낮고, 친구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친근감을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측면도 부족함을 나타내 준다. 또한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인 내담자들이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불안감 수준이 높으며, SCL-90 총점수와 하위점수인 우울점수, 편집점수에서 왕외톨이 집단과 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경, 2003, p. 335에서 재인용).

강은희 (2002)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라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일반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하위 집단별로 자기에 성향, 지배성, 사회·학업적 경쟁심 및 마키아벨리적 신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 결과, 자기에 하위요인별 집단간 차이에서 ‘특권의식’은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집단보다 높고, ‘권력욕구’는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피해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서 학교성실성 점수가 낮았으며, 가해-피해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마키아벨리적 신념이 높게 나타났다. 마키아벨리적 신념이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수단시하려는 심리적 경향으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냉담하며, 충동적으로 자극을 추구하고 천박한 매력으로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pp. 323-353).

이상에서 집단따돌림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미성숙함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돌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각각의 욕구와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며,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환경적 요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현상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따돌림 관련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문제 뿐 만아니라 가정·학교·사회의 환경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혜영(1999)은 집단따돌림을 일으키는 가족요인으로서 핵가족화·부모·자녀의 대화부족·폭력요인 풍토·과잉보호 등을, 학교요인으로는 학교의대형화·입시경쟁과열·폐쇄적 학급조직·교사의 역할약화·스트레스 해소여건 미흡 등을, 사회요인으로서 대중매체의 폭력성·집단주의 문화·파벌주의·인간존중의식 상실·가치기준 전도 등을 제시하였다 (구자경, 2003, p. 335에서 재인용).

이규미 등(2000)의 연구에서 왕따외톨이 집단과 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에 비해서 부모의 돌봄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돌보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친구관계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구자경, 2003, p. 335에서 재인용).

한준상 등(1999)은 집단따돌림 현상은 동질성을 강조하고 고집하는 사회와 문화일수록 강화된다고 하였다. 획일적인 가치가 통용되는, 그리고 유행이 쉽게 조장되는 사회일수록 강화된다고 하였다. 획일적인 가치가 통용되는, 그리고 유행이 쉽게 조장되는 사회일수록 그 획일성과 유행에서 이탈한 개인은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집단주의적 문화·연고주의·패거리 문화가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이러한 사회에서의 생존전략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한 행동과 태도를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집단적 요구에 따르고 있음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한다 (구자경, 2003, p. 335에서 재인용).

박진규(2000)는 문화적 패러다임에 따라 ‘집단따돌림’이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보편주의 문화관의 관점에서는 ‘집단따돌림’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보편주의 문화관의 관점에서는 ‘집단따돌림’은 구체적 기능성을 강조하는 문화체제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현상이다. 사회 제도화된 관점에서 보면 ‘집단따돌림’의 가해와 피해 현상은 조직의 목적과 운영규칙을 훼손시키는 이탈/비행행위이다. 보편주의 문화관과 제도화된 문화관이 지배하는 기능 지배의 사회에서는 문화적 격차현상이 심하고, 이러한 문화적 격차 속에서 사회적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지배집단이 그렇지 않은 개인/소수와 경쟁을 벌이는 각각의 주체성을 지닌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해 가는 형태이다. 이데올로기 문화관과 다원주의 문화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 ‘집단따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자경, 2003, p. 335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집단따돌림을 유발하게 되는 가정·학교·사회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집단 속에 개인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로 성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다. 성폭력

### (1) 가정요인

가정적 변인으로는 가정의 구조적인 요인과 양육방식 혹은 성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병근과 김현수(1992)의 연구에서는 일반중고생 1440명과 소년원에 재소중인 비행청소년 757명(성비행 48명, 기타 비행청소년 709명)을 대상으로 가족구조 및 가정인구학적 특성과 성비행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대가족(혹은 확산가족)에 속한 경우, 가정

의 수입원으로 부모가 아닌 친척에게 의존할 때, 또한 부모와의 별거 경험  
이 많을 때 성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이고 자녀의 자유를 구속하  
고 어른 중심적이고 처벌위주의 양육방식일 경우 자녀의 성비행의 성향이  
높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pp.  
604-625).

blanchard와becker는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성애적 사회화에  
적응하여 동년배의 이성파트너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런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면 일탈적 성행동에 몰입하게 된다고 본다  
(한상철 외, 2003, p. 461-491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Gagnon은 부적  
절한 자극과 이성애 기술 획득의 실패에 무게를 둔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  
들이 정상적으로 이성애 기술의 획득에 성공하면 일탈적 성행동이 일어나  
지 않지만 실패하거나 애매할 경우에는 성 일탈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한상철 외, 2003, p. 461-491에서 재인용). Howells와 marshall 역시 청소  
년들의 일탈적 성행동에 대한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상철  
외, 2003, p. 461-491에서 재인용). 즉,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부나 폭력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적응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일탈적 성행동  
에 빠져들기 쉽고, 따라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대의 강화와 친  
밀성 회복을 위한 기술연마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성교  
육을 불충분하게 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들이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거나 성지식을 얻는 경우는 친구나 학교로부  
터의 성교육에 비해 극히 적고, 특히 아버지로부터의 성교육은 더욱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혜원 · 이해경, 2002, pp. 247-272).

## (2) 학교 · 또래집단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에는 친구간의 관계나 영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생 중 또래에 대한 동조경향이 가장 높은 청소년기에는 성행동 뿐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또한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성사회화 집단으로서 상호간에 성지식과 성 태도를 교환한다 (김혜원 · 이해경, 2002, pp. 247-272). 그러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지식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형성되기보다는 많은 경우 지엽적이고 일화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쉽다.

여러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이 또래의 영향 속에서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문실업계 남녀 고등학생 1,124명과 수용시설 원생 346명을 포함한 총 1,4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행친구의 수는 성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 연구원, 1997, p. 40). 또한 강간범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21세 이상의 성인 강간범 가운데 공범의 비율은 21.6%인 반면, 20세 이하의 청소년 강간범 중 공범의 비율은 82.3%나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강간범죄를 저지를 때에 공범과 함께 강간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성구, 2000, pp. 117-120).

## (3) 대중매체 · 성문화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외설적인 음란물은 청소년들의 성행동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인잡지 · 비디오 · CD · 인터넷 등의 음란물의 범람이 청소년의 성충동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으며 그 속에 담겨있는 폭력성이 극단적인 성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TV는 상당한 성편견과 성차별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많은 만화 · 잡지 · 스포츠신문 · 비디오 · 인터넷들이 다루고 있는 성의 내용은 퇴폐

적이고 폭력적이다. 이렇게 범람하는 대중매체와 음란물 속에서 청소년들은 성행동이나 성범죄를 모방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쉽다.

대중매체의 영향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성문화는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적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각종 성관련 산업과 남성적 성을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성문화 등이 청소년 성문제의 사회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성문화 속에서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보고, 여성은 성적 자율권이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며, 여성은 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간주한다. 강간은 이러한 가부장적 성문화속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의 예로서, 우리사회에서 강간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역학관계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의식적인 겁주기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상철 외, 2003, p. 461-491에서 재인용). 즉, 강간은 남성다움의 표시, 남성의 여성지배와 우월성, 여성의 남성예속화를 합법화시키는 폭력범죄이고 이것이 허용되는 사회문화 속에서 청소년들 또한 불평등한 성문화를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 5. 학교폭력을 설명하는 이론

폭력은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공격성이라 할 수 있다. 공격성은 '다른 개체에 대해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전반적인 행동'이라고 정의 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폭력의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인간의 공격성향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공격성과 공격행위에 대한 이론 들은 그것이 생물학

적이거나 신체적 · 생태학적 · 유전학적으로 연구되거나, 환경학적이거나 사회적인 연관 속에서 연구되거나 간에, 한 견해의 이치나 일반성을 가지고 모두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폭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아노미(*Anomie*) 이론

아노미란 원래 무규범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노미를 사회학의 술어로서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E. Durkheim이다. 그의 개념 정의에 의하면 아노미는 사회 및 집단에 있어서 상대적인 무규범 상태를 말하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아노미는 어떤 개인의 심리적 상태(소외, 고독, 무력감 등)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의 어떤 특성을 뜻하고 있다. 즉 행위를 관리하는 사회적 준칙의 와해현상과 유관하며, 사회적 응집력의 감퇴현상을 뜻하는 것이다. 아노미는 규범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체계의 구성원 다수가 규범과의 동일화 의식이 약화되어 그 정당성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춘, 1998, pp. 204-205).

흔히 현대 사회를 가치관의 혼란시대라고 하며 이러한 혼란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은 이 시각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 나. 차별접촉이론

Sutherland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인간의 행동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며 모든 행동을 학습된 것으로 파악한다. 따

라서 비행도 학습된 것으로 보며 비행의 학습은 초기에는 사소한 비행식적인 집단에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집단적 경험의 형태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1996, p.39)

이 이론은 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환경보다는 이탈자가 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청소년 문제 행동에 접근하고 있다. 또 비행은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이며, 사회적인 대인 관계를 멀리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잘 어울리는 사람보다 비행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차별접촉이론은 폭력과 같은 범죄도 일반 행위와 같이 배워서 하는 것이며, 배우는 내용은 범죄기법 뿐만 아니라 태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폭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개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다.

#### 다. 하위문화이론

한 사회에는 집단에 따라 다양한 하위문화가 존재한다. 하위문화란 전체 문화의 하위부분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성원들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성원들은 학습을 통하여 그 내용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들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생활양식의 총체가 되는 것이다 (양춘, 1998, p. 80-83).

이 이론에 의하면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행과 관련된다고 보는 하위문화의 가치가 비행청소년들에게 내면화됨으로써 이러한 가치에 익숙하게 되다보니, 자연적으로 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강인함·남자다움·용감성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폭행류의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한다.

따라서 하위문화이론은 사회구조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은 그가 속한 집단  
의 문화, 즉 하위문화를 학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폭력 역시 이러한  
하위문화의 학습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 계층의 청소년  
들은 가정이나 또래집단에서 배운 행동양식과 학교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느끼며, 이것이 폭력 등 일탈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므로, 행동양식 사이의 긴장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폭력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라. 낙인이론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낙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이다. 낙인이론에 따르면, 행위자에 대한 낙인여부가 비행청소  
년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규범을 어길 때가 있는  
데 어떤 사람은 비행자라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찍히  
지 않는다.

낙인이론이란 어떤 비행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것  
이 개인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사회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론이다 (조화섭, 2005, p. 315).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의 내재된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라는 낙인을 찍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  
서 비행자란 낙인찍힌 사람이 그 집단에서는 국외자가 된다는 것이다. 즉  
낙인은 일종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역할을 하며 범죄자는 처음에는 인정하  
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낙인의 반응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제 2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학교폭력 역시 심각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도 사회나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으로 낙인되면 그렇게 규정된 개인은 정말로 폭력학생이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이론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청소년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나,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소년은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적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비행에 빠져들기 쉽고, 또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또 아노미이론·하위문화이론·차별적 접촉이론은 비행집단과 정상집단과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낙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은 비행집단과 정상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집단보다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

## 6. 유형별 대처방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

과거에는 사람들의 생활영역이 가정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가정이 유일한 생산자였고, 부모가 유일한 교육자이었다. 따라서 가정 중심으로 가정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청소년 지도·육성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전문화·다원화되고, 다양해진 사람의 역할수행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양적·질적인 급팽창을 가져왔다. 이렇게 급진적인 지식과 정보의 팽창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교육만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학교기관과 전문인이 교육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도 비대해지고 지식 위주의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교육의 문제성이 부각되기 시작

하였다. 학교폭력도 학교교육 문제점 중 하나이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대처방안에도 시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김연숙(2005)은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 가해 학생에 대한 대책, 가정에서 대책, 학교에서 대책, 사회적인 환경측면의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p. 66-75). 원명희(2002)는 가정에서 대책, 친구 및 청소년 문화 활동과 관련된 대책, 학교에서 대책, 지역사회에서 대책, 유관기관과 관련된 대책, 정부와 관련된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pp. 73-98). 강정근(2000)은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 가해학생에 대한 대책, 가정에서 처방대책, 학교에서 처방대책, 지역사회에서 처방대책, 제도적 차원의 처방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pp. 40-67). 차광수(2000)는 가정에서 비폭력문화 조성, 학교에서 비폭력문화 조성, 지역사회에서 비폭력문화 조성, 정부의 대안 제시 책을 대처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pp. 47-53). 백운학(1999)은 가정에서 대책, 학교에서 대책, 사회에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pp. 238-240).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그 대처방안을 달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신체적 폭력

폭력 피해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는 그것의 유형의 특성과 대처방안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명한 대처가 또 다른 예방의 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1998)에서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요약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일회성 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 학생부를 찾아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가해 학생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해 본다. 익명의 가해자일 경우 또다시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고 있을 경우엔 그 가능성이 높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 (2) 가해자가 1명인 경우

대응할 능력이 있음에도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가해자의 주변에 돌봐 주는 패거리나 선배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폭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지레짐작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비행정도가 심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별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피해자 부모가 그 아이를 직접 만나거나 타일러 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 사실이 일단 어른에게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가해 학생의 비행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과 담임과 같이 가해 학생을 만나는 방법, 담임을 통해 부모를 만나 지도를 부탁하는 방법이 있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 (3)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습적인 육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금품갈취와 심리적인 괴롭힘까지 겹쳐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지속해 나가기 힘든 상태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급우들도 자신에게 끼칠 보복이나 기타 영향력 때문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점이다. 또한 다수의 가해자가 동일한 정도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아이와 비주도적인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주도적인 아이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 (4) 가해자가 서클 소속인 경우

서클에 가입된 아이들에게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와, 서클에 가입하라는 협박 또는 탈퇴하려는 노력과정에서의 폭력이 주종을 이룬다. 서클 아이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 문제점은 직접적인 가해자 외에도 여러 아이들이 문제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다각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학교에서는 처벌위주보다, 선도위주로 가해자들을 선도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 학생의 보호이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 (5)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의 유형은 조직적인 폭력서클 가입 권유나 금품강요, 절도 등의 비행강요가 많다. 또한 기존의 폭력서클에 가입되어 있다가 탈퇴한 경우 배신자라고 하여 보복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위협과 협박의 정도가 정말로 심각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해결책은 위협이나 협박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특히 폭력서클 가입에 대한 위협일 경우 그 조직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조직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대책의 예로는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혼자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고, 더 큰 위협성이 있다면 당분간 부모가 등곳길에 동반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폭력의 유형과 함께 폭력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대처할 때 고려해야 한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6) 결석이 잦아지는 경우

학교폭력은 교사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피해 학생은 마음속으로 구조를 요청하나,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결석으로 이어진다. 교사는 평소에 학생들의 작은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결석 당일 부모와 연락하고, 친구들에게 결석 사유나 학교 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조한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 결석한 학생의 심정을 이해하고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7) 피해 학생이 알려올 경우

피해 학생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과 한 약속이나 비밀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하며 위축되어 있는 피해 학생의 신변을 확실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파악에 신속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폭력의 범위와 성격을 철저히 알아본다. 폭력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재발될 경우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지는 속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8) 친구가 알려올 경우

친구가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알려 왔다면 이 집단은 자정 능력을 가진 건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알려온 학생을 칭찬한다. 또한 피해 사실을 지켜보고 이를 교사에게 알리러 온 학생은 그 해결책을 나름대

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 해결 방법을 물어 본다. 피해 당사자의 집단 내부의 인간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 방법을 강구한다. 학생들의 세계에서 인간관계는 유동적이므로 선입관은 금물이다.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은 좋은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 (9) 부모에게 듣게 될 경우

학생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학교를 믿는 학부모의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교사와 공동으로 대응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화해의 기반을 만든다면 더욱 좋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대응 태도이다. 학교는 부모가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민주적이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 (10) 일기나 편지 · 건의함 · 낙서 등을 통해 알았을 경우

학생들의 소리 없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두려움으로 크게 알리지는 못하나 아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표현하기 마련이다. 신중한 조사가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로 제보를 하는 학생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떨기 때문이다 (백운학, 1999, pp. 240-242에서 재인용).

### 나.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학생·부모·교사·학교·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에서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해 학생이 해야 할 일

- (가)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한다.
- (나)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돌림 당한 이유를 분석하고 적응 능력을 기른다.
- (다) 갈등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자.
- (라) 따돌림을 극복하기 힘들면 용기를 내 부모나 상담실에 도움을 청하라 (백운학, 1999, p. 242에서 재인용).

(2) 가해 학생이 해야 할 일

- (가) 누구나 한 번쯤은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다. 입장을 바꿔 상대방을 이해해보도록 한다.
- (나) 내성적인 친구의 숨은 장점을 찾아보자.
- (다) 겉모양보다 친구들의 내면을 보도록 노력해 본다.
- (라) 따돌림의 아픔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인식하자 (백운학, 1999, p. 242에서 재인용).

(3) 방관하는 학생이 해야 할 일

- (가) 친한 친구가 따돌림을 당할 때, 같이 왕따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방관하지 말고 용기를 내 친구의 편에 서자. 그것이 진실한 우정이다.

- (나) 따돌림을 묵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해보자.
- (다)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TV·신문·주변에서 따돌림과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효율적인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라.
- (라) 과잉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라.
- (마)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주도록 하라 (백운학, 1999, p. 243에서 재인용).

#### (4) 부모가 해야 할 일

- (가) 무슨 이유로 괴롭히는지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자녀가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라.
- (나) 따돌림의 갈등이 있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도록 한다.
- (다) 훈계하지 말고 TV, 신문, 주변에서 따돌림과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효율적인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라.
- (라) 과잉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라.
- (마)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라 (백운학, 1999, p. 243에서 재인용).

#### (5) 학교에서 해야 할 일

- (가) 학생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 (나) 학급담임 교사는 교실을 안전하고 개방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평소 민주적인 학급경영을 하여야 한다.

- (다)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이 갖는 비윤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라) 소집단활동을 폭 넓게 활용해야 한다.
- (마) 또래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 (사) 평소 다양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구자경, 2003, p. 12).

(6) 사회에서 해야 할 일

- (가)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의 제거와 규제가 필요하다. 즉,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정화하는 데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 (나) 대중매체에서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 (다) 폭력상담 및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폭력학생의 보호자와 가해자에게 특별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의 도입 같은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기관에서나 지역사회에서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백운학, 1999, p. 240에서 재인용).

## 다. 성폭력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뿐만 아니라, 존재 사실 자체가 대다수

여성들에게 위협감과 공포감을 주어 여성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어떻게 성범죄자의 마수에서 벗어 날 수 있는가. 국가나 사회도 성적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여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방치할 수 도 없다. 여기서는 법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교육적 측면과 예방차원의 일반적인 사항, 개인적으로 성폭력 모면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교육

성폭력의 위기에서 여성들이 공격에 맞서 저항할 수 있도록 사회화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 (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상대방이 하려고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다.
- (나) 상대방이 호의를 무시했다고 하여 화를 내더라도, 이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는다. 본인이 불쾌하다면, 그것은 이미 호의가 아니라 성희롱이다.
- (다) 성적인 행동에 대해 거절을 할 때에는 미소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상대방에게 ‘말로는 거절을 하지만 상황을 평가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 지나치게 겁먹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
- (라)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는다. 자신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평가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 지나치게 겁먹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마) 성폭력 발생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 (바)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가도 된다. 괜히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아 망설이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성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소란을 피우는 게 낫다 (심영희, 2000, p. 129에서 재인용).

## (2)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성폭력 인식변화가 여러 사회집단에 보다 광범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남성을 어떻게 교육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떠오른다.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남성교육에 필수적인 것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육하는 것이다. 남녀 성관계란 매매나 강제가 아니라 동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성기중심의 육체적 접촉만으로 환원될 수 없고 전인적인 감수성의 교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남녀의 성규범이 다를 수 없다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할 것이다.

(가) 성적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NO'는 분명히 'NO'라는 것을 명심한다.

(나) 성적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에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다)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분명히 조절할 수 있다.

(라) 본인이 키스나 포옹, 성관계 등을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존중해야 한다.

(마)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동생이나 누나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 따져보고 행동한다.

(바) 거칠고 공격적이며,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남성다운 것은 아니다. 진정한 남자라면, 폭력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영희, 2000, p. 130에서 재인용).

(3) 예방적인 차원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 (가) 남자들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밝게까지 배회하지 않으며, 축제나 미팅 등을 하더라도 들뜨지 않고 일찍 귀가한다.
- (나) 달콤한 유혹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며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서 되도록 걷지 않는다. 또한, 갑자기 치한을 만났을 때는 가급적 빨리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화려한 옷차림과 지나친 노출은 삼간다.
- (다) 자기 전에 침실 등의 문을 잠그도록 하며, 내방자를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고, 실내에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치한으로부터의 불의의 공격에 대한 방어(남자의 취약부분 차기, 손가락 꺾기, 물어뜯기, 소리지르기 등)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든다.
- (라) 남자들을 따라 으스스한 곳이나 남의 집 방문은 가급적 피하고, 아파트 옥상 출입을 삼가며 늦은 밤 유원지 등에서는 남녀가 산책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 (마) 실내에서는 커튼을 치거나 불을 꺼서 상대방에게 성적 자극을 줄 염려가 있는 행위를 삼가고, 평소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좋다.

- (바)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 (사)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응방법을 숙지한다.
- (아)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리고, 택시를 탈 경우는 차 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두며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항상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닌다.
- (자) 술자리를 가지게 될 경우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만 마신다 (김선아, 2002, pp. 58-59).

(4) 개인적으로 성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 (가) 도망가기가 성공률 95.2%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길거리에서 성범죄와 직면했을 때 아주 좋은 여건이다).
- (나) 논리적인 말로 저항하기가 73.3%의 성공률을 보였다.
- (다) 힘으로 대항하기가 61.8%로 성공률을 보였다.
- (라) 소리 지르기가 58.3%로의 성공률을 보였다.
- (마) 애원하기가 52.9%로 가장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 (지광준, 1998, p. 218에서 재인용).

## 7.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 문제 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1995년부터 사회전반에 크게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하듯 많은 석사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런 기존 논문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접근 방식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선영(2003)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실태 및 대책’에서 학교 폭력이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도 학교폭력을 상담하고 싶은 사람으로 친구가 가장 많았고 전문 상담가·부모님·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피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고가 인문고보다, 농촌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야하고,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 실시, 폭력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감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한 생활태도를 갖고 성장 발전해야 할 학생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pp. 64-66).

최병찬(2003)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폭력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가해학생의 선도, 기성세대의 각성과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이나 통학로,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등에 대한 순찰 및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근본 대책으로서 처벌보다는 선도를 말하고 있으며, 특히 기성 사회의 각성 및 솔선수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p. 60).

윤진근(2002)은 ‘고등학생의 생활태도와 학교 폭력과의 관계’에서 학교생

활태도와 학교폭력은 서로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학교생활태도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면 학교폭력이 감소되고, 학교 생활태도의 하위 영역 중 교우관계에서의 소외감이 전체 폭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소외받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면 학교폭력이 감소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pp. 46-47).

정옥경(2001)은 ‘학교폭력의 실태연구’에서 학교폭력은 부모, 학생, 학교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가정과 사회 전반에 있어 인간 중심의 사회 환경 조성이 시급한 문제이며, 중학생,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p. 73).

이강희(2001)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서 청소년 폭력 방지법 제정,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 전화 운영,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원 체제 마련, 학교 부적응 학생과 중도탈락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에의 보급,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송, 언론매체 및 금융계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 지역사회교육 주임제도의 현실화에 의한 교내 상담활동의 활발한 전개, 청소년 종합문화 공간 설립 운영, 대학에 ‘현대 청소년 이해’나 ‘학교폭력’관련 교육과정 설치,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보호를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서 개발과 전국 학교에 보급, 학교폭력 신고 센터의 상호협조체계 구축, 부처별 대책 수립이 촉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p. 51).

박상도(2001)는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사전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부와 관련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강력한 예방·단속정책이 요청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사전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 및 대처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폭

력의 접근에 있어서 폭력유형과 방법, 폭력의 주체 등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형성시키고, 폭력의 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폭력 예방·근절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특히 부모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또래문화와 친구관계가 중요하며, 건전한 친구관계나 또래문화 형성 및 정착시킬 프로그램이나 지원정책이 요청되며, 정부나 학교당국과 교사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강력한 정책과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이 요청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pp. 77-83).

진교진(1999)은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에서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삶은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모와 학교는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학생들의 행동이나 생활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훈육의 방법을 제대로 적용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학생들 대부분은 제도적인 규제를 통한 학교폭력의 해결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직까지는 폭력을 예방하기는 소극적 자세밖에 취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 문화 공간의 설립 확충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역사회도 앞장서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p. 61).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서 학교폭력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인·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유형별(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로 나누어, 그에 따른 발생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학생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주변 청소년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원인과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방안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시내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남·여 공학) 4개교와 전문계고 고등학교(남·여 공학) 4개교를 선정하였다.

일반계 4학교는 공립 2개교 사립 2개교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별 문과 1반 이과 1반을 표집대상으로 삼아, 2학년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당 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전문계고 4학교는 공립 2개교 사립 2개교를 원칙으로 하여, 과 구분 없이 2학년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당 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총 560부를 배부하여 작성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64부를 제외시키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수 496부를 연구목적에 사용하였다.

####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지도교수의 조언을 받아, 기존의 문헌과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수정·보완은 본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 구성은 폭력의 발생원인에 관한 내용 유형별로 각각 20문항,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 유형별로 각각 20문항을 선정하여, 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7문항을 공통문항으로 만들었고, 폭력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선택한 문항 중에서 5문항씩 추가하여 각각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8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일반사항에 대한 기초조사 2문항,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실태 12문항,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관한 내용 12문항,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 12문항,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관한 내용 12문항,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 12문항, 성폭력 발생원인에 관한 내용 12문항, 성폭력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폭력의 원인에 관한 내용으로는 가해학생의 성격문제, 피해학생의 성격문제, 가해학생의 가정환경 문제, 학교제도 문제, 사회풍토 문제, 비교육적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폭력의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으로는 피해학생의 자신감 갖기, 피해학생에게 폭력 대처방안 교육하기, 피해신고 활성화 방안, 학교내 상담 활성화 방안, 교내 순찰 강화, 유해환경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2006년 1·2학기(2006년 3월 2일 ~ 2007년 3월 1일) 동안에

발생한 학교폭력 피·가해 실태 및 폭력 유형별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07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교사의 협조를 얻어 대상 학생들에게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검사 실시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으며, 검사지는 작성된 즉시 회수하였다.

검사하기 전에 검사지에 재학 중인 학교와 남녀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회수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학교별·성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간 교차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원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방안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의 논의

### 1. 연구결과

학교폭력 실태 및 유형별 발생원인·대처방안에 관한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교폭력의 실태

##### 1-1.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 결과

학교 폭력 피·가해 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에 따른 폭력 피·가해 실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br>신체의 일부를 맞은 적이 있다. |      |             |              |             | $\chi^2$    |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              |             |              |            | $\chi^2$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모르는<br>사람               | 같은 학교<br>친구 | 같은 학교<br>선후배 | 다른 학교<br>학생 | 학교 주변<br>청소년 | 전체         |              |
| 학교                                       | 일반고  | 36<br>12.8% | 246<br>87.2% | 282<br>100% | .02<br>df=1 | 4<br>11.1%              | 22<br>61.1% | 6<br>16.7%   | 2<br>5.6%   | 2<br>.6%     | 36<br>100% | 3.65<br>df=5 |
|                                          | 전문계고 | 26<br>12.1% | 188<br>87.9% | 214<br>100% |             |                         | 14<br>53.8% | 8<br>30.8%   | 4<br>15.4%  |              | 26<br>100% |              |
| 전체                                       |      | 62<br>12.5% | 434<br>87.5% | 496<br>100% |             |                         | 4<br>6.5%   | 36<br>58.1%  | 17<br>22.6% | 6<br>9.7%    | 2<br>3.2%  |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주변 청소년 등으로부터 뺨, 얼굴, 머리 등 신체의 일부를 맞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2.5%(62명)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으며, 87.5%(434명)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가 58.1%(36명)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같은 학교 선후배도 22.6%(17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별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일반고와 전문계고 모두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쪽에 80%가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반고와 전문계고 모두가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력 경험이 있다고 50%이상이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문계고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 친구 이외에 같은 학교 선후배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30.8%가 응답하였다.

<표 2>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신체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 |      |             |              | X <sup>2</sup> |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             |           |         |            | X <sup>2</sup>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같은학교 친구                | 같은 학교 선후배   | 다른학교 학생   | 학교주변 성인 | 전체         |                 |
| 학교                                     | 일반고  | 40<br>14.2% | 242<br>85.8% | 282<br>100%    | 32<br>76.2%            | 10<br>23.8% |           |         | 42<br>100% | 16.31**<br>df=4 |
|                                        | 전문계고 | 24<br>11.2% | 190<br>88.8% | 214<br>100%    | 10<br>45%              |             | 12<br>55% |         | 22<br>100% |                 |
| 전체                                     |      |             |              |                | 42<br>66%              | 10<br>16%   | 12<br>19% |         | 64<br>100% |                 |

\*\*p<.01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주변 청소년 등으로부터 뺨, 얼굴, 머리 등 신체의 일부를 때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2.9%(64명)가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7.1%(432명)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폭

력을 당한 사람은 일반고에서는 같은 학교 친구가 76.2%(32명)로 나타났고, 전문계고에서는 같은 학교 친구 45%(10명), 다른 학교 학생도 55%(12명)나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일반고와 전문계고 모두가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없다에 80% 이상이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상대는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반고 학생들은 같은 학교 친구 76.2%로 응답한 반면, 전문계고는 같은 학교 친구 41.7%, 다른 학교학생이 50%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chi^2=16.31$ ,  $p<.01$ ).

**<표 3> 최근 1년 동안 따돌림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선후배 두명 이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가? |      |            |              |             | $\chi^2$    | 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같은 학교 친구           | 전체         | $\chi^2$    |
| 학교                                                     | 일반고  | 10<br>3.5% | 272<br>96.5% | 282<br>100% | .61<br>df=1 | 10<br>100%         | 10<br>100% | .05<br>df=1 |
|                                                        | 전문계고 | 12<br>5.6% | 202<br>94.4% | 214<br>100% |             | 12<br>100%         | 12<br>100% |             |
|                                                        | 전체   | 22<br>4.4% | 474<br>95.6% | 496<br>100% |             | 22<br>100%         | 22<br>100% |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두명 이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4%(22명)로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95.6%(474명)는 따돌림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100%(22명)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 90% 이상이 따돌림 경험이

없다고 반응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집단 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 모두가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 보았다고 반응하였다.

**<표 4> 최근 1년 동안 따돌림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누군가를 따돌림 시킨 적이 있는가? |      |             |              |             | $\chi^2$    | 집단 따돌림 당한 상대는 누구였는가?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같은 학교 친구             | 전체         | $\chi^2$    |
| 학교                                       | 일반고  | 28<br>9.9%  | 254<br>90.1% | 282<br>100% | .11<br>df=1 | 28<br>100%           | 28<br>100% | .06<br>df=1 |
|                                          | 실업계고 | 24<br>11.2% | 190<br>88.8% | 214<br>100% |             | 24<br>100%           | 24<br>100% |             |
| 전체                                       |      | 52<br>10.5% | 444<br>89.5% | 496<br>100% |             | 52<br>100%           | 52<br>100% |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등과 함께 누군가를 따돌림 시킨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5%(52명)가 따돌림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9.5%(444명)는 따돌림을 시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가 100%(52명)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 약 90%가 경험이 ‘없다’라고 반응하여,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집단 따돌림을 당한 상대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 모두가 같은 학교 친구들을 상대로 따돌림을 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br>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      |            |              |             | $\chi^2$    |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 |             |              |             |            | $\chi^2$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모르는사람              | 같은 학교<br>친구 | 같은 학교<br>선후배 | 학교 주변<br>성인 | 전체         |              |
| 학교                                      | 일반고  | 12<br>4.3% | 270<br>95.7% | 282<br>100% | .64<br>df=1 |                    | 10<br>83.3% | 2<br>16.6%   |             | 12<br>100% | 3.62<br>df=4 |
|                                         | 전문계고 | 14<br>6.5% | 200<br>93.5% | 214<br>100% |             | 2<br>14.3%         | 10<br>71.4% |              | 2<br>14.3%  | 14<br>100% |              |
| 전체                                      |      | 26<br>5.2% | 470<br>94.8% | 496<br>100% |             |                    | 2<br>7.7%   | 20<br>76.9%  | 2<br>7.7%   | 2<br>7.7%  |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학교주변 청소년, 성인으로부터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2%(26명)가 성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94.8%는 성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가 76.9%(20명)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일반고에서는 같은 학교 선후배도 16.6%(2명)로 나타났고, 전문계고에서는 학교주변 성인도 14.4%(2명)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의 90%이상이 경험이 ‘없다’라고 반응하여,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이 같은 학교친구들이 성폭력을 행사하였다고 각각 83.3%, 71.4%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문계고 학생들은 모르는 사람, 학교 주변성인등도 각각 14.3%로 응답하여 일반고 학생들과 다소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

<표 6>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br>성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 |      |            |              |             |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              |            | X <sup>2</sup>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X <sup>2</sup>    |              |            |                |
| 학교                                       | 일반고  | 8<br>2.8%  | 274<br>97.2% | 282<br>100% | .16<br>df=1       | 같은 학교<br>선후배 | 학교주변<br>성인 | 전체             |
|                                          | 전문계고 | 8<br>3.7%  | 206<br>96.3% | 214<br>100% |                   | 6<br>75%     | 2<br>25%   | 8<br>100%      |
|                                          | 전체   | 16<br>3.2% | 480<br>96.8% | 496<br>100% |                   | 12<br>75%    | 4<br>25%   | 16<br>100%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학교주변 청소년, 성인 등에게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2%(16명)가 성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96.8%(480명)는 성 폭력을 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 폭력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가 75%(12명)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학교주변 성인도 25%(4명)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의 95%이상이 경험이 ‘없다’라고 반응하여,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 모두 같은 학교 선후배들이었다고 각각 75%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교주변 성인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 1-2. 성별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   | 최근 1년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br>신체의 일부를 맞은 적이 있다. |              |             | X <sup>2</sup>    |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             |            |             |            | X <sup>2</sup>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모르는<br>사람               | 같은학교<br>친구  | 같은학교<br>선후배 | 다른학교<br>학생 | 학교주변<br>청소년 | 전체         |                |
| 성별 | 남 | 42<br>16.8%                              | 208<br>83.2% | 250<br>100% | 4.26<br>*<br>df=1 | 2<br>4.8%               | 30<br>71.4% | 6<br>14.3%  | 2<br>4.8%  | 2<br>4.8%   | 42<br>100% | 9.83<br>df=5   |
|    | 여 | 20<br>8.1%                               | 226<br>91.9% | 246<br>100% |                   | 2<br>10%                | 6<br>30%    | 8<br>40%    | 4<br>20%   |             | 20<br>100% |                |
| 전체 |   | 62<br>12.5%                              | 434<br>87.5% | 496<br>100% |                   | 4<br>.5%                | 36<br>58%   | 14<br>22.6% | 6<br>9.7%  | 2<br>.5%    | 62<br>100% |                |

\*\*p<.01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주변 청소년 등으로부터 뺨, 얼굴, 머리 등 신체의 일부를 맞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2.5%(62명)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7.5%(434명)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가 58%(36명)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같은 학교 선후배도 22.6%(14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고등학생은 16.8%, 여자고등학생들은 8.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남자고등학생들은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71.4%가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같은 학교 선후배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고 40%가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수준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8>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신체 폭력을 가한 경험 이 있는가? |   |             |              |             | X <sup>2</sup>       |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             |             |             |            | X <sup>2</sup>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 체         |                      | 같은 학교 친구               | 같은 학교 선후배   | 다른 학교 학생    | 학교주변 성인     | 전 체        |                 |
| 성 별                                     | 남 | 50<br>20.0% | 200<br>80.0% | 250<br>100% | 11.30*<br>**<br>df=1 | 38<br>73.1%            | 6<br>11.5%  | 6<br>11.5%  | 2<br>3.8%   | 52<br>100% | 16.29**<br>df=4 |
|                                         | 여 | 14<br>5.7%  | 232<br>94.3% | 246<br>100% |                      | 4<br>28.6%             | 4<br>28.6%  | 6<br>42.9%  |             | 14<br>100% |                 |
| 전 체                                     |   | 64<br>12.9% | 432<br>87.1% | 496<br>100% |                      |                        | 42<br>63.6% | 10<br>15.2% | 12<br>18.2% | 2<br>3%    |                 |

\*p<.01, \*\*\*p<.001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주변 청소년 등으로부터 뺨, 얼굴, 머리 등 신체의 일부를 때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2.9%(64명)가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7.1%(432명)는 폭력을 행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가 63.6%(42명)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같은 학교 선후배도 15.2%(10명), 다른 학교 학생도 18.2%(12명)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11.30$ ,  $p<.001$ ). 즉, 남자 고등학생들은 신체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다에 20%가 응답하였고, 여자 고등학생들은 단지 5.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상대는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남자고등학생들은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에 73.1%가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42.9%가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실태에 차이가 있었다.

<표 9> 최근 1년 동안 따돌림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선후배<br>두명이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당한 적이 있는가? |   |            |              |             | $\chi^2$      | 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같은 학교 친구           | 전체         | $\chi^2$    |
| 성별                                                         | 남 | 4<br>1.6%  | 246<br>98.4% | 250<br>100% | 4.78*<br>df=1 | 4<br>100%          | 4<br>100%  | .25<br>df=1 |
|                                                            | 여 | 18<br>7.3% | 228<br>92.7% | 246<br>100% |               | 18<br>100%         | 18<br>100% |             |
| 전체                                                         |   | 22<br>4.4% | 474<br>95.6% | 496<br>100% |               | 22<br>100%         | 22<br>100% |             |

\*p<.05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두명 이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4%(22명)가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95.6%(474명)는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100%(22명)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여 고등학생들 간에는 경험이 없는데 90%이상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자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가 7.3%가 응답하여 남자고등학생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4.78$ ,  $P<.01$ ).

한편, 집단 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남녀 고등학생 모두가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보았다고 반응하였다.

<표 10> 최근 1년 동안 따돌림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br>누군가를 따돌림 시킨 것이 있는가? |   |             |              |             | $\chi^2$    | 집단 따돌림 당한 상대는<br>누구였는가? |            |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같은 학교 친구                | 전체         | $\chi^2$    |
| 성별                                         | 남 | 26<br>10.4% | 224<br>89.6% | 250<br>100% | .00<br>df=1 | 26<br>100%              | 26<br>100% | .01<br>df=1 |
|                                            | 여 | 26<br>10.6% | 220<br>89.4% | 246<br>100% |             | 26<br>100%              | 26<br>100% |             |
| 전체                                         |   | 52<br>10.5% | 444<br>89.5% | 496<br>100% |             | 52<br>100%              | 52<br>100% |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등과 함께 누군가를 따돌림 시킨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5%(52명)가 따돌림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9.5%(444명)는 따돌림을 시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가 100%(52명)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녀 고등학생들 약 90%가 경험이 '없다'라고 반응하여, 남녀 고등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chi^2=.00$ ).

한편, 집단 따돌림을 당한 상대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남녀 고등학생 모두가 같은 학교 친구들을 상대로 따돌림을 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1>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br>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   |            |              |             | X <sup>2</sup> |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 |             |              |             |            | X <sup>2</sup> |
|------------------------------------------|---|------------|--------------|-------------|----------------|--------------------|-------------|--------------|-------------|------------|----------------|
|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             |              |             |            |                |
|                                          |   |            |              |             |                | 모르는 사람             | 같은 학교<br>친구 | 같은 학교<br>선후배 | 학교 주변<br>성인 | 전체         |                |
| 성 별                                      | 남 | 14<br>5.6% | 236<br>94.4% | 250<br>100% | .07<br>df=1    |                    | 12<br>85.7% |              | 2<br>14.3%  | 14<br>100% | .39<br>df=4    |
|                                          | 여 | 12<br>4.9% | 234<br>95.1% | 246<br>100% |                | 2<br>16.7%         | 8<br>66.7%  | 2<br>16.7%   |             | 12<br>100% |                |
| 전체                                       |   | 26<br>5.2% | 470<br>94.8% | 496<br>100% |                |                    | 2<br>7.7%   | 20<br>76.9%  | 2<br>7.7%   | 2<br>7.7%  |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학교주변 청소  
년, 성인으로부터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2%(26명)가 성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8%

(470명)는 성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 폭력을 행사한 사  
람은 같은 학교 친구가 76.9%(20명)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남학생은 학교  
주변 성인도 14.3%(2명)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모르는 사람·같은 학교 선  
후배도 각각 16.7%(2명)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 남녀 고등학생들 90%이상이 경험이 ‘없다’라고 반응하여,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에 대하여 남자고등학생들은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85.7%가 응답하였고,  
여자고등학생들은 같은 학교 친구들 이외에 모르는 사람이나 같은 학교 선  
후배에 각각 16.7%가 응답하였다.

<표 12>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을 행한 경험에 대한 결과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br>성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 |    |            |              |             | X <sup>2</sup> |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             |    | X <sup>2</sup> |
|------------------------------------------|----|------------|--------------|-------------|----------------|-------------------|-------------|----|----------------|
| 성별                                       |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같은 학교<br>선후배      | 학교 주변<br>성인 | 전체 |                |
|                                          | 남  | 10<br>4.0% | 240<br>96.0% | 250<br>100% | 6<br>60%       | 4<br>40%          | 10<br>100%  |    |                |
|                                          | 여  | 6<br>2.4%  | 240<br>97.6% | 246<br>100% | 6<br>100%      |                   | 6<br>100%   |    |                |
|                                          | 전체 | 16<br>3.2% | 480<br>96.8% | 496<br>100% | 12<br>75%      | 4<br>25%          | 16<br>100%  |    |                |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학교주변 청소년, 성인 등에게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2%(16명)가 성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96.8%(480명)는 성폭력을 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선후배가 75%(12명)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남자고등학생은 학교주변 성인도 40%(4명)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녀 고등학생들의 95%이상이 경험이 '없다'라고 반응하여,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남녀 고등학생들이 같은 학교 선후배들이었다고 각각 60%, 100%로 응답하였다.

## 나.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2-1. 학교별 학교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분석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학교별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학교별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신체적<br>폭력 원인 1 |      | 피해 학생이 건방지게 행동하는 등 당할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78<br>27.7%                          | 140<br>49.6% | 50<br>17.7%  | 14<br>5.0%   | 282<br>100% | 3.95<br>df=3 |
|                | 전문계고 | 72<br>33.6%                          | 96<br>44.9%  | 26<br>12.1%  | 20<br>9.3%   | 214<br>100% |              |
| 전체             |      | 150<br>30.2%                         | 236<br>47.6% | 76<br>15.3%  | 34<br>6.9%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2 |      |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30<br>10.6%                          | 122<br>43.3% | 60<br>21.3%  | 70<br>24.8%  | 282<br>100% | 6.27<br>df=3 |
|                | 전문계고 | 42<br>19.6%                          | 94<br>43.9%  | 46<br>21.5%  | 32<br>15.0%  | 214<br>100% |              |
| 전체             |      | 72<br>14.5%                          | 216<br>43.5% | 106<br>21.4% | 102<br>20.6%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3 |      | 방임, 과잉보호, 체벌 등 가해 학생 부모의 양육방식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52<br>18.4%                          | 94<br>33.3%  | 104<br>36.9% | 32<br>11.3%  | 282<br>100% | 5.40<br>df=3 |
|                | 전문계고 | 26<br>12.1%                          | 56<br>26.2%  | 92<br>43.0%  | 40<br>18.7%  | 214<br>100% |              |
| 전체             |      | 78<br>15.7%                          | 150<br>30.2% | 196<br>39.5% | 72<br>14.5%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4 |      |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98<br>34.8%                          | 124<br>44.0% | 46<br>16.3%  | 14<br>5.0%   | 282<br>100% | 2.90<br>df=3 |
|                | 전문계고 | 88<br>41.1%                          | 96<br>44.9%  | 20<br>9.3%   | 10<br>4.7%   | 214<br>100% |              |
| 전체             |      | 186<br>37.5%                         | 220<br>44.4% | 66<br>13.3%  | 24<br>4.8%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5 |      |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160<br>56.7%                         | 88<br>31.2%  | 22<br>7.8%   | 12<br>4.3%   | 282<br>100% | .89<br>df=3  |
|                | 전문계고 | 116<br>54.2%                         | 70<br>32.7%  | 22<br>10.3%  | 6<br>2.8%    | 214<br>100% |              |
| 전체             |      | 276<br>55.6%                         | 158<br>31.9% | 44<br>8.9%   | 18<br>3.6%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신체적<br>폭력 원인 6  |      | 폭력을 미화하는 대중 매체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52<br>18.4%                                | 106<br>37.6% | 96<br>34.0%  | 28<br>9.9%   | 282<br>100% | 5.18<br>df=3 |
|                 | 전문계고 | 32<br>15.0%                                | 68<br>31.8%  | 72<br>33.6%  | 42<br>19.6%  | 214<br>100% |              |
| 전체              |      | 84<br>16.9%                                | 174<br>35.1% | 168<br>33.9% | 70<br>14.1%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7  |      | 슬집, PC방, 대화방 등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36<br>12.8%                                | 100<br>35.5% | 84<br>29.8%  | 62<br>22.0%  | 282<br>100% | 1.38<br>df=3 |
|                 | 전문계고 | 26<br>12.1%                                | 62<br>29.0%  | 74<br>34.6%  | 52<br>24.3%  | 214<br>100% |              |
| 전체              |      | 62<br>12.5%                                | 162<br>32.7% | 158<br>31.9% | 114<br>23.0%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8  |      |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가해학생의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142<br>50.4%                               | 98<br>34.8%  | 20<br>7.1%   | 22<br>7.8%   | 282<br>100% | 5.19<br>df=3 |
|                 | 전문계고 | 102<br>47.7%                               | 78<br>36.4%  | 28<br>13.1%  | 6<br>2.8%    | 214<br>100% |              |
| 전체              |      | 244<br>49.2%                               | 176<br>35.5% | 48<br>9.7%   | 28<br>5.6%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9  |      | 가해 학생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98<br>34.8%                                | 122<br>43.3% | 36<br>12.8%  | 26<br>9.2%   | 282<br>100% | 3.42<br>df=3 |
|                 | 전문계고 | 72<br>33.6%                                | 98<br>45.8%  | 34<br>15.9%  | 10<br>4.7%   | 214<br>100% |              |
| 전체              |      | 170<br>34.3%                               | 220<br>44.4% | 70<br>14.1%  | 36<br>7.3%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10 |      | 성적저하, 가정 환경 등 가해 학생이 열등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38<br>13.5%                                | 106<br>37.6% | 94<br>33.3%  | 44<br>15.6%  | 282<br>100% | 1.32<br>df=3 |
|                 | 전문계고 | 28<br>13.1%                                | 72<br>33.6%  | 86<br>40.2%  | 28<br>13.1%  | 214<br>100% |              |
| 전체              |      | 66<br>13.3%                                | 178<br>35.9% | 180<br>36.3% | 72<br>14.5%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신체적<br>폭력 원인 11 |      | 사소한 감정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62<br>22.0%                | 152<br>53.9% | 54<br>19.1%  | 14<br>5.0%  | 282<br>100% | 3.19<br>df=3 |
|                 | 전문계고 | 58<br>27.1%                | 120<br>56.1% | 24<br>11.2%  | 12<br>5.6%  | 214<br>100% |              |
| 전체              |      | 120<br>24.2%               | 272<br>54.8% | 78<br>15.7%  | 26<br>5.2%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12 |      | 피해 학생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72<br>25.5%                | 94<br>33.3%  | 86<br>30.5%  | 30<br>10.6% | 282<br>100% | 5.06<br>df=3 |
|                 | 전문계고 | 62<br>29.0%                | 92<br>43.0%  | 48<br>22.4%  | 12<br>5.6%  | 214<br>100% |              |
| 전체              |      | 134<br>27.0%               | 186<br>37.5% | 134<br>27.0% | 42<br>8.5%  | 496<br>100% |              |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은 ‘신체적 폭력의 발생원인’으로 피해학생의 당  
할만한 행동 77.8%(386명), 학교의 적절치 못한 대처 81.9%(406명),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87.5%(434명), 가해학생의 자기중심적 사고  
84.7%(420명), 가해학생의 충동적인 성격 78.7%(390명), 사소한 감정 79%  
(392명)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전문계고 모두 피해학생의 건방진 행동, 학교의 미흡한 대처, 보복  
이 두려워 신고 꺼려하는 행위, 가해학생의 자기중심적 사고, 가해 학생의  
공격적인 성격 등에 신체적 폭력의 원인을 두고 있었다. 특히 보복이 두려  
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14> 학교별 집단 따돌림 발생원인에 따른 인식 분석**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1 |      | 피해 학생이 잘난 척하는 등 당할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84<br>29.8%                           | 142<br>50.4% | 50<br>17.7%  | 6<br>2.1%   | 282<br>100% | 6.35<br>df=3 |
|                  | 전문계고 | 84<br>39.3%                           | 96<br>44.9%  | 22<br>10.3%  | 12<br>5.6%  | 214<br>100% |              |
| 전체               |      | 168<br>33.9%                          | 238<br>48.0% | 72<br>14.5%  | 18<br>3.6%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2 |      | 따돌림 당한 피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취약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42<br>14.9%                           | 94<br>33.3%  | 90<br>31.9%  | 56<br>19.9% | 282<br>100% | 6.40<br>df=3 |
|                  | 전문계고 | 44<br>20.6%                           | 90<br>42.1%  | 58<br>27.1%  | 22<br>10.3% | 214<br>100% |              |
| 전체               |      | 86<br>17.3%                           | 184<br>37.1% | 148<br>29.8% | 78<br>15.7%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3 |      | 방임, 과잉보호, 체벌 등 가해 학생 부모의 양육방식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54<br>19.1%                           | 96<br>34.0%  | 96<br>34.0%  | 36<br>12.8% | 282<br>100% | .29<br>df=3  |
|                  | 전문계고 | 36<br>16.8%                           | 72<br>33.6%  | 76<br>35.5%  | 30<br>14.0% | 214<br>100% |              |
| 전체               |      | 90<br>18.1%                           | 168<br>33.9% | 172<br>34.7% | 66<br>13.3%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4 |      | 따돌림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106<br>37.6%                          | 108<br>38.3% | 50<br>17.7%  | 18<br>6.4%  | 282<br>100% | 4.74<br>df=3 |
|                  | 전문계고 | 74<br>34.6%                           | 104<br>48.6% | 32<br>15.0%  | 4<br>1.9%   | 214<br>100% |              |
| 전체               |      | 180<br>36.3%                          | 212<br>42.7% | 82<br>16.5%  | 22<br>4.4%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5 |      | 따돌림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128<br>45.4%                          | 102<br>36.2% | 40<br>14.2%  | 12<br>4.3%  | 282<br>100% | .51<br>df=3  |
|                  | 전문계고 | 98<br>45.8%                           | 70<br>32.7%  | 36<br>16.8%  | 10<br>4.7%  | 214<br>100% |              |
| 전체               |      | 226<br>45.6%                          | 172<br>34.7% | 76<br>15.3%  | 22<br>4.4%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6  |      | 폭력을 미화하는 대중 매체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48<br>17.0%                      | 94<br>33.3%  | 110<br>39.0% | 30<br>10.6%  | 282<br>100% | 5.04<br>df=3 |
|                   | 전문계고 | 30<br>14.0%                      | 70<br>32.7%  | 70<br>32.7%  | 44<br>20.6%  | 214<br>100% |              |
| 전 체               |      | 78<br>15.7%                      | 164<br>33.1% | 180<br>36.3% | 74<br>14.9%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7  |      | 술집, PC방, 대화방 등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22<br>7.8%                       | 96<br>34.0%  | 94<br>33.3%  | 70<br>24.8%  | 282<br>100% | 7.39<br>df=3 |
|                   | 전문계고 | 18<br>8.4%                       | 40<br>18.7%  | 86<br>40.2%  | 70<br>32.7%  | 214<br>100% |              |
| 전 체               |      | 40<br>8.1%                       | 136<br>27.4% | 180<br>36.3% | 140<br>28.2%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8  |      | 가해 학생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92<br>32.6%                      | 104<br>36.9% | 64<br>22.7%  | 22<br>7.8%   | 282<br>100% | 1.64<br>df=3 |
|                   | 전문계고 | 54<br>25.2%                      | 86<br>40.2%  | 54<br>25.2%  | 20<br>9.3%   | 214<br>100% |              |
| 전 체               |      | 146<br>29.4%                     | 190<br>38.3% | 118<br>23.8% | 42<br>8.5%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9  |      | 가해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72<br>25.5%                      | 117<br>40.4% | 72<br>25.5%  | 24<br>8.5%   | 282<br>100% | 2.10<br>df=3 |
|                   | 전문계고 | 44<br>20.6%                      | 106<br>49.5% | 48<br>22.4%  | 16<br>7.5%   | 214<br>100% |              |
| 전 체               |      | 116<br>23.4%                     | 220<br>44.4% | 120<br>24.2% | 40<br>8.1%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10 |      |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144<br>51.1%                     | 98<br>34.8%  | 32<br>11.3%  | 8<br>2.8%    | 282<br>100% | .16<br>df=3  |
|                   | 전문계고 | 104<br>48.6%                     | 78<br>36.4%  | 26<br>12.1%  | 6<br>2.8%    | 214<br>100% |              |
| 전 체               |      | 248<br>50.0%                     | 176<br>35.5% | 58<br>11.7%  | 14<br>2.8%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11 |      | 피해학생이 공부나 얼굴 등 잘난 척하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64<br>22.7%                      | 110<br>39.0% | 86<br>30.5%  | 22<br>7.8%   | 282<br>100% | 2.39<br>df=3 |
|                   | 전문계고 | 58<br>27.1%                      | 66<br>30.8%  | 66<br>30.8%  | 24<br>11.2%  | 214<br>100% |              |
| 전 체               |      | 122<br>24.6%                     | 176<br>35.5% | 152<br>30.6% | 46<br>9.3%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12 |      | 피해 학생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66<br>23.4%           | 112<br>39.7% | 72<br>25.5%  | 32<br>11.3% | 282<br>100% | 4.73<br>df=3 |
|                   | 전문계고 | 60<br>28.0%           | 62<br>29.0%  | 74<br>34.6%  | 18<br>8.4%  | 214<br>100% |              |
| 전체                |      | 126<br>25.4%          | 174<br>35.1% | 146<br>29.4% | 50<br>10.1% | 496<br>100% |              |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은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으로 피해학생의 당할 만한 행동 81.9%(406명), 학교의 적절치 못한 대처 79%(392명),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80.3%(398명), 다수 학생들의 집단분위기 동조 85.5%(424명)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전문계고 모두 피해학생의 당할 만한 행동, 학교의 미흡한 대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다수 학생의 집단 분위기 동조에 집단따돌림의 원인을 두고 있었다. 특히 다수 학생들의 집단분위기 동조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15> 학교별 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성폭력<br>발생 원인1 |      | 피해학생이 야한 말과 행동 등 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36<br>12.8%                         | 88<br>31.2%  | 84<br>29.8%  | 74<br>26.2%  | 282<br>100% | 1.10<br>df=3 |
|               | 전문계고 | 20<br>9.3%                          | 66<br>30.8%  | 62<br>29.0%  | 66<br>30.8%  | 214<br>100% |              |
| 전체            |      | 56<br>11.3%                         | 154<br>31.0% | 146<br>29.4% | 140<br>28.2%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 원인2 |      | 성 폭력 피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12<br>4.3%                          | 90<br>31.9%  | 122<br>43.3% | 58<br>20.6%  | 282<br>100% | 3.96<br>df=3 |
|               | 전문계고 | 18<br>8.4%                          | 78<br>36.4%  | 70<br>32.7%  | 48<br>22.4%  | 214<br>100% |              |
| 전체            |      | 30<br>6.0%                          | 168<br>33.9% | 192<br>38.7% | 106<br>21.4%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성폭력<br>발생원인3  |       | 방임, 과잉보호, 체벌 등 가해 학생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24<br>9.9%                           | 62<br>22.0%  | 124<br>44.0% | 68<br>24.1%  | 282<br>100% | 4.66<br>df=3 |
|               | 전문 계고 | 12<br>5.6%                           | 44<br>20.6%  | 82<br>38.3%  | 76<br>35.5%  | 214<br>100% |              |
| 전 체           |       | 40<br>8.1%                           | 106<br>21.4% | 206<br>41.5% | 144<br>29.0%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4  |       | 성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88<br>31.2%                          | 104<br>36.9% | 58<br>20.6%  | 32<br>11.3%  | 282<br>100% | .29<br>df=3  |
|               | 전문 계고 | 66<br>30.8%                          | 82<br>38.3%  | 46<br>21.5%  | 20<br>9.3%   | 214<br>100% |              |
| 전 체           |       | 154<br>31.0%                         | 186<br>37.5% | 104<br>21.0% | 52<br>10.5%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5  |       | 성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130<br>46.1%                         | 86<br>30.5%  | 42<br>14.9%  | 24<br>8.5%   | 282<br>100% | .98<br>df=3  |
|               | 전문 계고 | 92<br>43.0%                          | 76<br>35.5%  | 26<br>12.1%  | 20<br>9.3%   | 214<br>100% |              |
| 전 체           |       | 222<br>44.8%                         | 162<br>32.7% | 68<br>13.7%  | 44<br>8.9%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 6 |       |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 매체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126<br>44.7%                         | 96<br>34.0%  | 50<br>17.7%  | 10<br>3.5%   | 282<br>100% | 2.54<br>df=3 |
|               | 전문 계고 | 80<br>37.4%                          | 92<br>43.0%  | 32<br>15.0%  | 10<br>4.7%   | 214<br>100% |              |
| 전 체           |       | 206<br>41.5%                         | 184<br>37.9% | 82<br>16.5%  | 20<br>4.0%   | 496<br>100% |              |
| 성폭력 발생원인7     |       | 술집, PC방, 대화방 등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86<br>30.5%                          | 98<br>34.8%  | 66<br>23.4%  | 32<br>11.3%  | 282<br>100% | 2.98<br>df=3 |
|               | 전문 계고 | 68<br>31.8%                          | 92<br>43.0%  | 38<br>17.8%  | 16<br>7.5%   | 214<br>100% |              |
| 전 체           |       | 154<br>31.0%                         | 190<br>38.3% | 104<br>21.0% | 48<br>9.7%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성폭력 발생원인8  |      | 가해 학생의 성충동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142<br>50.4%                       | 102<br>36.2% | 26<br>9.2%   | 24<br>4.3%   | 282<br>100% | .40<br>df=3   |
|            | 전문계고 | 110<br>51.4%                       | 72<br>33.6%  | 24<br>11.2%  | 8<br>3.7%    | 214<br>100% |               |
| 전체         |      | 252<br>50.8%                       | 174<br>35.1% | 50<br>10.1%  | 20<br>4.0%   | 496<br>100% |               |
| 성폭력 발생원인9  |      | 가해 학생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 성정보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98<br>34.8%                        | 128<br>45.4% | 40<br>14.2%  | 16<br>5.7%   | 282<br>100% | 8.78*<br>df=3 |
|            | 전문계고 | 96<br>44.9%                        | 58<br>27.1%  | 44<br>20.6%  | 16<br>7.5%   | 214<br>100% |               |
| 전체         |      | 194<br>39.1%                       | 186<br>37.5% | 84<br>16.9%  | 32<br>6.5%   | 496<br>100% |               |
| 성폭력 발생원인10 |      | 가해 학생의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 채팅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68<br>24.1%                        | 106<br>37.6% | 78<br>27.7%  | 30<br>10.6%  | 282<br>100% | .26<br>df=3   |
|            | 전문계고 | 56<br>26.2%                        | 80<br>37.4%  | 54<br>25.2%  | 24<br>11.2%  | 214<br>100% |               |
| 전체         |      | 124<br>25.0%                       | 186<br>37.5% | 132<br>26.6% | 54<br>10.9%  | 496<br>100% |               |
| 성폭력 발생원인11 |      | 남·여 간의 사회화 과정 차이와 성 역할 분담 차이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30<br>10.6%                        | 96<br>34.0%  | 102<br>36.2% | 54<br>19.1%  | 282<br>100% | 1.67<br>df=3  |
|            | 전문계고 | 28<br>13.2%                        | 82<br>38.7%  | 72<br>34.0%  | 30<br>14.2%  | 214<br>100% |               |
| 전체         |      | 58<br>11.7%                        | 178<br>36.0% | 174<br>35.2% | 84<br>17.0%  | 496<br>100% |               |
| 성폭력 발생원인12 |      | 남·여 간의 불평등한 권력과 힘의 관계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학교         | 일반고  | 32<br>11.3%                        | 92<br>32.6%  | 96<br>34.0%  | 62<br>22.0%  | 282<br>100% | 5.49<br>df=3  |
|            | 전문계고 | 46<br>21.5%                        | 72<br>33.6%  | 58<br>27.1%  | 38<br>17.8%  | 214<br>100% |               |
| 전체         |      | 78<br>15.7%                        | 164<br>33.1% | 154<br>31.0% | 100<br>20.2% | 496<br>100% |               |

\* p<.05 〈다음 쪽에 계속〉

일반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은 ‘성폭력의 발생원인’으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77.5%(384명),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매체 79.4%(390명), 가해학생의 성충동 85.9%(426명), 가해학생의 부정확한 성 정보 76.6%(380명)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학생의 성충동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가해 학생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성 정보 때문이다’라고 항목에 일반고 학생들은 ‘조금 그렇다’에 45.4%가 응답한 반면, 전문계고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에 44.9%가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 2-2. 성별 학교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학교 폭력 유형 중 집단 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성별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신체적<br>폭력 원인 1 |   | 피해 학생이 건방지게 행동하는 등 당할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효과가적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44<br>35.2%                          | 102<br>40.8% | 44<br>17.6%  | 16<br>6.4%   | 250<br>100% | 5.41<br>df=3 |
|                | 여 | 62<br>25.2%                          | 134<br>54.5% | 32<br>13.0%  | 18<br>7.3%   | 246<br>100% |              |
| 전체             |   | 150<br>30.2%                         | 236<br>47.6% | 76<br>15.3%  | 34<br>6.9%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2 |   |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취약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44<br>17.6%                          | 106<br>42.4% | 50<br>20.0%  | 50<br>20.0%  | 250<br>100% | 1.99<br>df=3 |
|                | 여 | 28<br>11.4%                          | 110<br>44.7% | 56<br>22.8%  | 52<br>21.1%  | 246<br>100% |              |
| 전체             |   | 72<br>14.5%                          | 216<br>43.5% | 106<br>21.4% | 102<br>20.6%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신체적<br>폭력 원인 3 |   | 방임, 과잉보호, 체벌 등 가해 학생 부모의 양육방식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48<br>19.2%                              | 68<br>27.2%  | 92<br>36.8%  | 42<br>16.8%  | 250<br>100% | 4.08<br>df=3  |
|                | 여 | 30<br>12.2%                              | 82<br>33.3%  | 104<br>42.3% | 30<br>12.2%  | 246<br>100% |               |
| 전체             |   | 78<br>15.7%                              | 150<br>30.2% | 196<br>39.5% | 72<br>14.5%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4 |   |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112<br>44.8%                             | 104<br>41.6% | 20<br>8.0%   | 14<br>5.6%   | 250<br>100% | 9.65*<br>df=3 |
|                | 여 | 74<br>30.1%                              | 116<br>47.2% | 46<br>18.7%  | 10<br>4.1%   | 246<br>100% |               |
| 전체             |   | 186<br>37.5%                             | 220<br>44.4% | 66<br>13.3%  | 24<br>4.8%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5 |   |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148<br>59.2%                             | 78<br>31.2%  | 16<br>6.4%   | 8<br>3.2%    | 250<br>100% | 2.47<br>df=3  |
|                | 여 | 128<br>52.0%                             | 80<br>32.5%  | 28<br>11.4%  | 10<br>4.1%   | 246<br>100% |               |
| 전체             |   | 276<br>55.6%                             | 158<br>31.9% | 44<br>8.9%   | 18<br>3.6%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6 |   | 폭력을 미화하는 대중 매체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44<br>17.6%                              | 88<br>35.2%  | 74<br>29.6%  | 44<br>17.6%  | 250<br>100% | 3.60<br>df=3  |
|                | 여 | 40<br>16.3%                              | 86<br>35.0%  | 94<br>38.2%  | 26<br>10.6%  | 246<br>100% |               |
| 전체             |   | 84<br>16.9%                              | 174<br>35.1% | 168<br>33.9% | 70<br>14.1%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7 |   | 술집, PC방, 대화방 등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38<br>15.2%                              | 76<br>30.4%  | 66<br>26.4%  | 70<br>28.0%  | 250<br>100% | 6.98<br>df=3  |
|                | 여 | 24<br>9.8%                               | 86<br>35.0%  | 92<br>37.4%  | 44<br>17.9%  | 246<br>100% |               |
| 전체             |   | 62<br>12.5%                              | 162<br>32.7% | 158<br>31.9% | 114<br>23.0%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8 |   |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가해 학생의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136<br>54.4%                             | 82<br>32.8%  | 20<br>8.0%   | 12<br>4.8%   | 250<br>100% | 2.95<br>df=3  |
|                | 여 | 108<br>43.9%                             | 94<br>38.2%  | 28<br>11.4%  | 16<br>6.5%   | 246<br>100% |               |
| 전체             |   | 244<br>49.2%                             | 176<br>35.5% | 48<br>9.7%   | 28<br>5.6%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신체적<br>폭력 원인 9  |   | 가해 학생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102<br>40.8%                               | 100<br>40.0% | 30<br>12.0%  | 18<br>7.2%  | 250<br>100% | 5.01<br>df=3 |
|                 | 여 | 68<br>27.6%                                | 120<br>48.8% | 40<br>16.3%  | 18<br>7.3%  | 246<br>100% |              |
| 전체              |   | 170<br>34.3%                               | 220<br>44.4% | 70<br>14.1%  | 36<br>7.3%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10 |   | 성적저하, 가정 환경 등 가해 학생이 열등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38<br>15.2%                                | 94<br>37.6%  | 78<br>31.2%  | 40<br>16.0% | 250<br>100% | 3.07<br>df=3 |
|                 | 여 | 28<br>11.4%                                | 84<br>34.1%  | 102<br>41.5% | 32<br>13.0% | 246<br>100% |              |
| 전체              |   | 66<br>13.3%                                | 178<br>35.9% | 180<br>36.3% | 72<br>14.5%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11 |   | 사소한 감정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70<br>28.0%                                | 130<br>52.0% | 36<br>14.4%  | 14<br>5.6%  | 250<br>100% | 2.22<br>df=3 |
|                 | 여 | 50<br>20.3%                                | 142<br>57.7% | 42<br>17.1%  | 12<br>4.9%  | 246<br>100% |              |
| 전체              |   | 120<br>24.2%                               | 272<br>54.8% | 78<br>15.7%  | 26<br>5.2%  | 496<br>100% |              |
| 신체적<br>폭력 원인 12 |   | 피해 학생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80<br>32.0%                                | 98<br>39.2%  | 58<br>23.2%  | 14<br>5.6%  | 250<br>100% | 6.32<br>df=3 |
|                 | 여 | 54<br>22.0%                                | 88<br>35.8%  | 76<br>30.9%  | 28<br>11.4% | 246<br>100% |              |
| 전체              |   | 134<br>27.0%                               | 186<br>37.5% | 134<br>27.0% | 42<br>8.5%  | 496<br>100% |              |

\*  $p < .05$

남·여 고등학생들은 ‘신체적 폭력의 발생원인’으로 피해학생의 당할만한 행동 77.8%(386명), 학교의 적절치 못한 대처 81.9%(406명),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87.5%(434명), 가해학생의 자기중심적 사고 84.7%(420명), 가해학생의 충동적인 성격 78.7%(390명)로 나타났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신체적 폭력의 원인으로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목에 남자 고등학생이 ‘매우 그렇다’에 44.8%가 응답한 반면, 여자 고등학생은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표 17> 성별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1 |   | 피해 학생이 잘난 척하는 등 당할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96<br>38.4%                           | 104<br>41.6% | 42<br>16.8%  | 8<br>3.2%   | 250<br>100% | 4.70<br>df=3 |
|                  | 여 | 72<br>29.3%                           | 134<br>54.5% | 30<br>12.2%  | 10<br>4.1%  | 246<br>100% |              |
| 전체               |   | 168<br>33.9%                          | 238<br>48.0% | 72<br>14.5%  | 18<br>3.6%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2 |   | 따돌림 당한 피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42<br>16.8%                           | 104<br>41.6% | 60<br>24.0%  | 44<br>17.6% | 250<br>100% | 4.86<br>df=3 |
|                  | 여 | 44<br>17.9%                           | 80<br>32.5%  | 88<br>35.8%  | 34<br>13.8% | 246<br>100% |              |
| 전체               |   | 86<br>17.3%                           | 184<br>37.1% | 148<br>29.8% | 78<br>15.7%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3 |   | 방임, 과잉보호, 차별 등 가해 학생 부모의 양육방식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50<br>20.0%                           | 96<br>38.4%  | 74<br>29.6%  | 30<br>12.0% | 250<br>100% | 4.20<br>df=3 |
|                  | 여 | 40<br>16.3%                           | 72<br>29.3%  | 98<br>39.8%  | 36<br>14.6% | 246<br>100% |              |
| 전체               |   | 90<br>18.1%                           | 168<br>33.9% | 172<br>34.7% | 66<br>13.3%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4 |   | 따돌림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104<br>41.6%                          | 98<br>39.2%  | 48<br>15.2%  | 10<br>4.0%  | 250<br>100% | 3.08<br>df=3 |
|                  | 여 | 76<br>30.9%                           | 104<br>46.3% | 44<br>17.9%  | 12<br>4.9%  | 246<br>100% |              |
| 전체               |   | 180<br>36.3%                          | 212<br>42.7% | 82<br>16.5%  | 22<br>4.4%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5 |   | 따돌림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128<br>51.2%                     | 82<br>32.8%  | 28<br>11.2%  | 12<br>4.8%   | 250<br>100% | 4.88<br>df=3 |
|                  | 여 | 98<br>39.8%                      | 90<br>36.6%  | 48<br>19.5%  | 10<br>4.1%   | 246<br>100% |              |
| 전체               |   | 226<br>45.6%                     | 172<br>34.7% | 76<br>15.3%  | 22<br>4.4%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6 |   | 폭력을 미화하는 대중 매체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44<br>17.6%                      | 82<br>32.8%  | 80<br>32.0%  | 44<br>17.6%  | 250<br>100% | 3.06<br>df=3 |
|                  | 여 | 34<br>13.8%                      | 82<br>33.3%  | 100<br>40.7% | 30<br>12.2%  | 246<br>100% |              |
| 전체               |   | 78<br>15.7%                      | 164<br>33.1% | 180<br>36.3% | 74<br>14.9%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7 |   | 술집, PC방, 대화방 등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20<br>8.0%                       | 70<br>28.0%  | 76<br>30.4%  | 84<br>33.6%  | 250<br>100% | 5.02<br>df=3 |
|                  | 여 | 20<br>8.1%                       | 66<br>26.8%  | 104<br>42.3% | 56<br>22.8%  | 246<br>100% |              |
| 전체               |   | 40<br>8.1%                       | 136<br>27.4% | 180<br>36.3% | 140<br>28.2%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8 |   | 가해 학생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88<br>35.2%                      | 84<br>33.6%  | 58<br>23.2%  | 20<br>8.0%   | 250<br>100% | 4.41<br>df=3 |
|                  | 여 | 58<br>23.6%                      | 106<br>43.1% | 60<br>24.4%  | 22<br>8.9%   | 246<br>100% |              |
| 전체               |   | 146<br>29.4%                     | 190<br>38.3% | 118<br>23.8% | 42<br>8.5%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9 |   | 가해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74<br>29.6%                      | 104<br>41.6% | 52<br>20.8%  | 20<br>8.0%   | 250<br>100% | 5.79<br>df=3 |
|                  | 여 | 42<br>17.1%                      | 116<br>47.2% | 68<br>27.6%  | 20<br>8.1%   | 246<br>100% |              |
| 전체               |   | 116<br>23.4%                     | 220<br>44.4% | 120<br>24.2% | 40<br>8.1%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10 |   |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126<br>50.4%                    | 82<br>32.8%  | 30<br>12.0%  | 12<br>4.8%  | 250<br>100% | 4.03<br>df=3 |
|                   | 여 | 122<br>49.6%                    | 94<br>38.2%  | 28<br>11.4%  | 2<br>.8%    | 246<br>100% |              |
| 전체                |   | 248<br>50.0%                    | 176<br>35.5% | 58<br>11.7%  | 14<br>2.8%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11 |   | 피해학생이 공부나 얼굴 등 잘난 척하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76<br>30.4%                     | 76<br>30.4%  | 72<br>28.8%  | 26<br>10.4% | 250<br>100% | 5.91<br>df=3 |
|                   | 여 | 46<br>18.7%                     | 100<br>40.7% | 80<br>32.5%  | 20<br>8.1%  | 246<br>100% |              |
| 전체                |   | 122<br>24.6%                    | 176<br>35.5% | 152<br>30.6% | 46<br>9.3%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발생 원인 12 |   | 피해 학생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72<br>28.8%                     | 84<br>33.6%  | 70<br>28.0%  | 24<br>9.6%  | 250<br>100% | 1.54<br>df=3 |
|                   | 여 | 54<br>22.0%                     | 90<br>36.6%  | 76<br>30.9%  | 26<br>10.6% | 246<br>100% |              |
| 전체                |   | 126<br>25.4%                    | 174<br>35.1% | 146<br>29.4% | 50<br>10.1% | 496<br>100% |              |

남·여 고등학생들은 ‘집단따돌림의 발생원인’으로 피해학생의 당할만한 행동 81.9%(406명), 학교의 적절치 못한 대처 79%(392명),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80.3%(398명), 다수 학생의 집단분위기 동조 85.5%(424명)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 학생의 집단분위기 동조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피해학생의 당할 만한 행동, 학교의 미흡한 대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다수 학생의 집단 분위기 동조에 집단따돌림의 원인을 두고 있었다.

<표 18> 성별 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 성폭력<br>발생원인1 |   | 피해학생이 야한 말과 행동 등 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40<br>16.0%                          | 86<br>34.4%  | 64<br>25.6%  | 60<br>24.0%  | 250<br>100% | 8.72*<br>df=3 |
|              | 여 | 16<br>6.5%                           | 68<br>27.6%  | 82<br>33.3%  | 80<br>32.5%  | 246<br>100% |               |
| 전 체          |   | 56<br>11.3%                          | 154<br>31.0% | 146<br>29.4% | 140<br>28.2%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2 |   | 성 폭력 피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18<br>7.2%                           | 80<br>32.0%  | 98<br>39.2%  | 54<br>21.6%  | 250<br>100% | .84<br>df=3   |
|              | 여 | 12<br>4.9%                           | 88<br>35.8%  | 94<br>38.2%  | 52<br>21.1%  | 246<br>100% |               |
| 전 체          |   | 30<br>6.0%                           | 168<br>33.9% | 192<br>38.7% | 106<br>21.4%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3 |   | 방임, 과잉보호, 체벌 등 가해 학생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24<br>9.6%                           | 66<br>26.4%  | 92<br>36.8%  | 68<br>27.2%  | 250<br>100% | 5.37<br>df=3  |
|              | 여 | 16<br>6.5%                           | 40<br>16.3%  | 114<br>46.3% | 76<br>30.9%  | 246<br>100% |               |
| 전 체          |   | 40<br>8.1%                           | 106<br>21.4% | 206<br>41.5% | 144<br>29.0%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4 |   | 성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72<br>28.8%                          | 100<br>40.0% | 44<br>17.6%  | 34<br>13.6%  | 250<br>100% | 4.53<br>df=3  |
|              | 여 | 82<br>33.3%                          | 86<br>35.0%  | 60<br>24.4%  | 18<br>7.3%   | 246<br>100% |               |
| 전 체          |   | 154<br>31.0%                         | 186<br>37.5% | 104<br>21.0% | 52<br>10.5%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5 |   | 성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별           | 남 | 102<br>40.8%                         | 90<br>36.0%  | 38<br>15.2%  | 20<br>8.0%   | 250<br>100% | 2.37<br>df=3  |
|              | 여 | 120<br>48.8%                         | 72<br>29.3%  | 30<br>12.2%  | 24<br>9.8%   | 246<br>100% |               |
| 전 체          |   | 222<br>44.8%                         | 162<br>32.7% | 68<br>13.7%  | 44<br>8.9%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성폭력<br>발생원인 6 |   |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 매체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 별           | 남 | 112<br>44.8%                      | 88<br>35.2%  | 38<br>15.2%  | 12<br>4.8%  | 250<br>100% | 1.77<br>df=3  |
|               | 여 | 94<br>38.2%                       | 100<br>40.7% | 44<br>17.9%  | 8<br>3.3%   | 246<br>100% |               |
| 전 체           |   | 206<br>41.5%                      | 188<br>37.9% | 82<br>16.5%  | 20<br>4.0%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7  |   | 슬집, PC방, 대화방 등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 별           | 남 | 74<br>29.6%                       | 90<br>36.0%  | 62<br>24.8%  | 24<br>9.6%  | 250<br>100% | 2.29<br>df=3  |
|               | 여 | 80<br>32.5%                       | 100<br>40.7% | 42<br>17.1%  | 24<br>9.8%  | 246<br>100% |               |
| 전 체           |   | 154<br>31.0%                      | 190<br>38.3% | 104<br>21.0% | 48<br>9.7%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8  |   | 가해 학생의 성충동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 별           | 남 | 138<br>55.2%                      | 88<br>35.2%  | 12<br>4.8%   | 12<br>4.8%  | 250<br>100% | 8.30*<br>df=3 |
|               | 여 | 114<br>46.3%                      | 86<br>35.0%  | 38<br>15.4%  | 8<br>3.3%   | 246<br>100% |               |
| 전 체           |   | 252<br>50.8%                      | 174<br>35.1% | 50<br>10.1%  | 20<br>4.0%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9  |   | 가해 학생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 성 정보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 별           | 남 | 106<br>42.4%                      | 92<br>36.8%  | 36<br>14.4%  | 16<br>6.4%  | 250<br>100% | 1.69<br>df=3  |
|               | 여 | 88<br>35.8%                       | 94<br>38.2%  | 48<br>19.5%  | 16<br>6.5%  | 246<br>100% |               |
| 전 체           |   | 194<br>39.1%                      | 186<br>37.5% | 84<br>16.9%  | 32<br>6.5%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10 |   | 가해 학생의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 채팅 때문이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 별           | 남 | 72<br>28.8%                       | 80<br>32.0%  | 68<br>27.2%  | 30<br>12.0% | 250<br>100% | 3.81<br>df=3  |
|               | 여 | 52<br>21.1%                       | 106<br>43.1% | 64<br>26.0%  | 24<br>9.8%  | 246<br>100% |               |
| 전 체           |   | 124<br>25.0%                      | 186<br>37.5% | 132<br>26.6% | 54<br>10.9%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성폭력<br>발생원인11 |   | 남·여 간의 사회화 과정 차이와 성 역할 분담 차이 때문이다. |              |              |              | 전 체         | X <sup>2</sup> |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 별           | 남 | 30<br>12.1%                        | 86<br>34.7%  | 82<br>33.1%  | 50<br>20.2%  | 250<br>100% | 1.94<br>df=3   |
|               | 여 | 28<br>11.4%                        | 92<br>37.4%  | 92<br>37.4%  | 34<br>13.8%  | 246<br>100% |                |
| 전 체           |   | 58<br>11.7%                        | 178<br>36.0% | 174<br>35.2% | 84<br>17.0%  | 496<br>100% |                |
| 성폭력<br>발생원인12 |   | 남·여 간의 불평등한 권력과 힘의 관계 때문이다.        |              |              |              | 전 체         | X <sup>2</sup> |
|               |   | 매우그렇다                              | 조금그렇다        | 조금아니다        | 전혀아니다        |             |                |
| 성 별           | 남 | 34<br>13.6%                        | 72<br>28.8%  | 82<br>32.8%  | 62<br>24.8%  | 250<br>100% | 5.05           |
|               | 여 | 44<br>17.9%                        | 92<br>37.4%  | 72<br>29.3%  | 38<br>15.4%  | 246<br>100% |                |
| 전 체           |   | 78<br>15.7%                        | 164<br>33.1% | 154<br>31.0% | 100<br>20.2% | 496<br>100% |                |

\*p<.05

남·여 고등학생들은 ‘성 폭력의 발생원인’으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77.5%(384명),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매체 79.4%(394명), 가해학생 성충동 85.9%(426명), 가해학생의 부정확한 성 정보 76.6%(380명)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학생의 성 충동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가해 학생의 성충동 때문이다’ 항목에 남자고등학생들은 ‘매우 그렇다’라고 55.2%가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단지 46.3%가 응답하여 남자고등학생들이 보다 더 강하게 가해학생의 성충동이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다.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교 폭력 유형별 대처방안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1. 학교별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먼저, 학교별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방안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학교별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 대한 인식 분석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1 |      |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              |              |            | 전 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86<br>30.5%                               | 126<br>44.7% | 60<br>21.3%  | 10<br>3.5% | 282<br>100% | 3.23<br>df=3        |
|                  | 전문계고 | 84<br>39.6%                               | 90<br>42.5%  | 30<br>14.2%  | 8<br>3.8%  | 214<br>100% |                     |
|                  | 전 체  | 170<br>34.4%                              | 216<br>43.7% | 90<br>18.2%  | 18<br>3.6%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2 |      | 신체적 폭력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62<br>22.0%                               | 98<br>34.8%  | 96<br>34.0%  | 26<br>9.2% | 282<br>100% | 1.87<br>df=3        |
|                  | 전문계고 | 60<br>28.0%                               | 78<br>36.4%  | 60<br>28.0%  | 16<br>7.5% | 214<br>100% |                     |
|                  | 전 체  | 122<br>24.6%                              | 176<br>35.5% | 156<br>31.5% | 42<br>8.5%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3 |      | 신체적 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여 처벌한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18<br>41.8%                              | 106<br>37.6% | 52<br>18.4%  | 6<br>2.1%  | 282<br>100% | 1.38<br>df=3        |
|                  | 전문계고 | 88<br>41.5%                               | 74<br>34.9%  | 40<br>18.9%  | 10<br>4.7% | 216<br>100% |                     |
|                  | 전 체  | 206<br>41.7%                              | 180<br>36.4% | 92<br>18.6%  | 16<br>3.2%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4 |      | 교내 신체적 폭력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86<br>30.5%                               | 82<br>29.1%  | 86<br>30.5%  | 28<br>9.9% | 282<br>100% | 6.55<br>df=3        |
|                  | 전문계고 | 76<br>35.5%                               | 84<br>39.3%  | 42<br>19.6%  | 12<br>5.6% | 214<br>100% |                     |
|                  | 전 체  | 162<br>32.7%                              | 166<br>33.5% | 128<br>25.8% | 40<br>8.1%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5 |      | 교내 신체적 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68<br>24.1%                               | 68<br>24.1%  | 120<br>42.6% | 26<br>9.2% | 282<br>100% | 11.96*<br>*<br>df=3 |
|                  | 전문계고 | 72<br>34.0%                               | 76<br>35.8%  | 56<br>26.4%  | 8<br>3.8%  | 214<br>100% |                     |
|                  | 전 체  | 140<br>28.3%                              | 144<br>29.1% | 176<br>35.6% | 34<br>6.9%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6  |      | 신체적 폭력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74<br>26.2%                                | 110<br>39.0% | 60<br>21.3%  | 38<br>13.5%  | 282<br>100% | 3.69<br>df=3        |
|                   | 전문계고 | 70<br>32.7%                                | 64<br>29.9%  | 58<br>27.1%  | 22<br>10.3%  | 214<br>100% |                     |
| 전체                |      | 144<br>29.0%                               | 174<br>35.1% | 118<br>23.8% | 60<br>12.1%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7  |      | 신체적 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60<br>21.3%                                | 122<br>43.3% | 78<br>27.7%  | 22<br>7.8%   | 282<br>100% | 5.22<br>df=3        |
|                   | 전문계고 | 66<br>31.1%                                | 64<br>30.2%  | 64<br>30.2%  | 18<br>8.5%   | 214<br>100% |                     |
| 전체                |      | 126<br>25.5%                               | 186<br>37.7% | 142<br>28.7% | 40<br>8.1%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8  |      | 학교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담당학교로 방문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66<br>23.4%                                | 62<br>22.0%  | 114<br>40.4% | 40<br>14.2%  | 282<br>100% | 15.77*<br>*<br>df=3 |
|                   | 전문계고 | 50<br>23.4%                                | 94<br>43.9%  | 52<br>24.3%  | 18<br>8.4%   | 214<br>100% |                     |
| 전체                |      | 116<br>23.4%                               | 156<br>31.5% | 166<br>33.5% | 58<br>11.7%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9  |      | 학교교육이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92<br>32.6%                                | 96<br>34.0%  | 72<br>25.5%  | 22<br>7.8%   | 282<br>100% | 1.14<br>df=3        |
|                   | 전문계고 | 66<br>31.1%                                | 78<br>36.8%  | 58<br>27.4%  | 10<br>4.7%   | 214<br>100% |                     |
| 전체                |      | 158<br>32.0%                               | 174<br>35.2% | 130<br>26.3% | 32<br>6.5%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10 |      |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위주의 대응책을 강화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30<br>10.6%                                | 82<br>29.1%  | 104<br>36.9% | 66<br>23.4%  | 282<br>100% | .99<br>df=3         |
|                   | 전문계고 | 20<br>9.3%                                 | 74<br>34.6%  | 70<br>32.7%  | 50<br>23.4%  | 214<br>100% |                     |
| 전체                |      | 50<br>10.1%                                | 156<br>31.5% | 174<br>35.1% | 116<br>23.4%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11 |      | 학교주변의 PC방, 단란주점, 대화방 등 유해환경을 없앤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34<br>12.1%                       | 74<br>26.2%  | 96<br>34.0%  | 78<br>27.7%  | 282<br>100% | 5.99<br>df=3 |
|                   | 전문계고 | 34<br>15.9%                       | 42<br>19.6%  | 98<br>45.8%  | 40<br>18.7%  | 214<br>100% |              |
| 전체                |      | 68<br>13.7%                       | 118<br>23.4% | 194<br>39.1% | 118<br>23.8%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12 |      | 지역사회 및 신민단체와 연계하여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56<br>19.9%                       | 86<br>30.5%  | 90<br>31.9%  | 50<br>17.7%  | 282<br>100% | 3.41<br>df=3 |
|                   | 전문계고 | 42<br>19.6%                       | 88<br>41.1%  | 54<br>25.2%  | 30<br>14.0%  | 214<br>100% |              |
| 전체                |      | 98<br>19.8%                       | 174<br>35.1% | 144<br>29.0% | 80<br>16.1%  | 496<br>100% |              |

\*\*p<.01

일반고와 전문계고의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 인식에서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8.1%(386명), 가해학생 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 78.1%(386명), 학교교육 전인교육으로 전환 67.2%(332명)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 ‘교내 신체적 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항목에 전문계고 학생들은 ‘효과가 크다’ 35.8%, ‘매우 효과적이다’ 34%, ‘효과가 적다’에 26.4%를 응답하였던 반면, 일반고 학생들은 ‘효과가 적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에 42.6%각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chi^2=11.96$ ,  $p<.01$ ). 또한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학교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담당학교를 방문한다.’에 일반고 학생들은 ‘효과가 적다’에 40.4%를 응답한 반면, 실업고 학생들은 ‘효과가 크다’에 43.9%를 응답하여 실업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들이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15.77$ ,  $p<.01$ ).

<표 20> 학교별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1 |      |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86<br>30.5%                               | 116<br>41.1% | 64<br>22.7%  | 16<br>5.7%  | 282<br>100% | 3.88<br>df=3  |
|                 | 전문계고 | 90<br>42.1%                               | 68<br>31.8%  | 46<br>21.5%  | 10<br>4.7%  | 214<br>100% |               |
| 전체              |      | 176<br>35.5%                              | 184<br>37.1% | 110<br>22.2% | 26<br>5.2%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2 |      | 집단따돌림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40<br>14.2%                               | 116<br>41.1% | 92<br>32.6%  | 34<br>12.1% | 282<br>100% | 6.13<br>df=3  |
|                 | 전문계고 | 48<br>22.4%                               | 100<br>46.7% | 52<br>24.3%  | 14<br>6.5%  | 214<br>100% |               |
| 전체              |      | 88<br>17.7%                               | 216<br>43.5% | 144<br>29.0% | 48<br>9.7%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3 |      |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16<br>41.1%                              | 90<br>31.9%  | 56<br>19.9%  | 20<br>7.1%  | 282<br>100% | .25<br>df=3   |
|                 | 전문계고 | 86<br>40.2%                               | 66<br>30.8%  | 48<br>22.4%  | 14<br>6.5%  | 214<br>100% |               |
| 전체              |      | 202<br>40.7%                              | 156<br>31.5% | 104<br>21.0% | 34<br>6.9%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4 |      | 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86<br>30.5%                               | 92<br>32.6%  | 74<br>26.2%  | 30<br>10.6% | 282<br>100% | 4.19<br>df=3  |
|                 | 전문계고 | 70<br>32.7%                               | 72<br>33.6%  | 64<br>29.9%  | 8<br>3.7%   | 214<br>100% |               |
| 전체              |      | 156<br>31.5%                              | 164<br>33.1% | 138<br>27.8% | 38<br>7.7%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5 |      | 교내 집단따돌림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84<br>29.8%                               | 80<br>28.4%  | 86<br>30.5%  | 32<br>11.3% | 282<br>100% | 8.93*<br>df=3 |
|                 | 전문계고 | 42<br>19.6%                               | 94<br>43.9%  | 66<br>30.8%  | 12<br>5.6%  | 214<br>100% |               |
| 전체              |      | 126<br>25.4%                              | 174<br>35.1% | 152<br>30.6% | 44<br>8.9%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집단따돌림 대처방안 6  |      | 집단따돌림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78<br>27.7%                                | 112<br>39.7% | 68<br>24.1%  | 24<br>8.5%  | 282<br>100% | .68<br>df=3  |
|               | 전문계고 | 54<br>25.2%                                | 92<br>43.0%  | 46<br>21.5%  | 22<br>10.3% | 214<br>00%  |              |
| 전체            |      | 132<br>26.6%                               | 204<br>41.1% | 114<br>23.0% | 46<br>9.3%  | 496<br>00%  |              |
| 집단따돌림 대처방안 7  |      |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84<br>29.8%                                | 86<br>30.5%  | 82<br>29.1%  | 30<br>10.6% | 282<br>100% | 1.58<br>df=3 |
|               | 전문계고 | 62<br>29.0%                                | 54<br>25.2%  | 66<br>30.8%  | 32<br>15.0% | 214<br>00%  |              |
| 전체            |      | 146<br>29.4%                               | 140<br>28.2% | 148<br>29.8% | 62<br>12.5% | 496<br>00%  |              |
| 집단따돌림 대처방안 8  |      | 따돌림의 아픔이 가해 학생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16<br>41.1%                               | 52<br>36.2%  | 42<br>14.9%  | 22<br>7.8%  | 282<br>00%  | 5.37<br>df=3 |
|               | 전문계고 | 114<br>53.3%                               | 64<br>29.9%  | 30<br>14.0%  | 6<br>2.8%   | 214<br>100% |              |
| 전체            |      | 230<br>46.4%                               | 166<br>33.5% | 72<br>14.5%  | 28<br>5.6%  | 496<br>100% |              |
| 집단따돌림 대처방안 9  |      | 교사가 학급을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76<br>27.0%                                | 122<br>43.3% | 64<br>22.7%  | 20<br>7.1%  | 282<br>100% | 5.13<br>df=3 |
|               | 전문계고 | 74<br>34.6%                                | 82<br>38.3%  | 54<br>25.2%  | 4<br>1.9%   | 214<br>100% |              |
| 전체            |      | 150<br>30.2%                               | 204<br>41.1% | 118<br>23.8% | 24<br>4.8%  | 496<br>100% |              |
| 집단따돌림 대처방안 10 |      | 교내 순찰을 강화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76<br>27.0%                                | 74<br>26.2%  | 94<br>33.3%  | 38<br>13.5% | 282<br>00%  | 2.22<br>df=3 |
|               | 전문계고 | 54<br>25.2%                                | 70<br>32.7%  | 56<br>26.2%  | 34<br>15.9% | 214<br>00%  |              |
| 전체            |      | 130<br>26.2%                               | 144<br>29.0% | 150<br>30.2% | 72<br>14.5% | 496<br>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11 |      | 소집단 활동을 폭 넓게 활용한다.                  |              |              |              | 전 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52<br>18.4%                         | 98<br>34.8%  | 110<br>39.0% | 22<br>7.8%   | 282<br>100% | 2.79<br>df=3   |
|                  | 전문계고 | 44<br>20.6%                         | 92<br>43.0%  | 64<br>29.9%  | 14<br>6.5%   | 214<br>100% |                |
| 전 체              |      | 96<br>19.4%                         | 190<br>38.3% | 174<br>35.1% | 36<br>7.3%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12 |      |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을 동아리 활동 등 단체활동에 참여시킨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56<br>19.9%                         | 76<br>27.0%  | 88<br>31.2%  | 62<br>22.0%  | 282<br>100% | 2.67<br>df=3 * |
|                  | 전문계고 | 58<br>27.1%                         | 62<br>29.0%  | 52<br>24.3%  | 42<br>19.6%  | 214<br>100% |                |
| 전 체              |      | 114<br>23.0%                        | 138<br>27.8% | 140<br>28.2% | 104<br>21.0% | 496<br>100% |                |

p<.05

일반고와 전문계고의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인식에서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2.6%(360명), 가해학생 엄격히 처벌 72.2%(358명), 따돌림의 아픔이 가해학생 자신에게 되돌아 오ム 79.9%(396명), 교사의 학급운영 개방적 민주적 71.3%(354명)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교내 집단따돌림 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항목에 일반고 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 29.8%, ‘효과가 크다’ 28.4%, ‘효과가 적다’에 30.5%를 응답하였던 반면, 전문계고 학생들은 ‘효과가 크다’에 43.9%, ‘효과가 적다’에 30.8%에 반응하여 일반고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대처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chi^2=8.93$ ,  $p<.05$ ).

<표 21> 학교별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성폭력<br>대처방안 1 |      |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94<br>33.3%                             | 116<br>41.1% | 54<br>19.1%  | 18<br>6.4%  | 282<br>100% | 8.18*<br>df=3 |
|               | 전문계고 | 106<br>49.5%                            | 56<br>26.2%  | 36<br>16.8%  | 16<br>7.5%  | 214<br>100% |               |
| 전체            |      | 200<br>40.3%                            | 172<br>34.7% | 90<br>18.1%  | 34<br>6.9%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2 |      |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82<br>29.1%                             | 118<br>41.8% | 56<br>19.9%  | 26<br>9.2%  | 282<br>100% | 3.03<br>df=3  |
|               | 전문계고 | 84<br>39.3%                             | 80<br>37.4%  | 36<br>16.8%  | 14<br>6.5%  | 214<br>100% |               |
| 전체            |      | 166<br>33.5%                            | 198<br>39.9% | 92<br>18.5%  | 40<br>8.1%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3 |      | 성 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50<br>53.2%                            | 72<br>25.5%  | 48<br>17.0%  | 12<br>4.3%  | 282<br>100% | .60<br>df=3   |
|               | 전문계고 | 116<br>54.2%                            | 56<br>26.2%  | 30<br>14.0%  | 12<br>5.6%  | 214<br>100% |               |
| 전체            |      | 266<br>53.6%                            | 128<br>25.8% | 78<br>15.7%  | 24<br>4.8%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4 |      | 교내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04<br>36.9%                            | 100<br>35.5% | 46<br>16.3%  | 32<br>11.3% | 282<br>100% | 2.64<br>df=3  |
|               | 전문계고 | 78<br>36.4%                             | 70<br>32.7%  | 50<br>23.4%  | 16<br>7.5%  | 214<br>100% |               |
| 전체            |      | 182<br>36.7%                            | 170<br>34.3% | 96<br>19.4%  | 48<br>9.7%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5 |      | 교내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84<br>29.8%                             | 88<br>31.2%  | 72<br>25.5%  | 38<br>13.5% | 282<br>100% | 2.08<br>df=3  |
|               | 전문계고 | 68<br>31.8%                             | 78<br>36.4%  | 50<br>23.4%  | 18<br>8.4%  | 214<br>100% |               |
| 전체            |      | 152<br>30.6%                            | 166<br>33.5% | 122<br>24.6% | 56<br>11.3%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성폭력<br>대처방안 6  |      | 성폭력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70<br>24.8%                               | 104<br>38.3% | 66<br>23.4%  | 38<br>13.5% | 282<br>100% | .61<br>df=3        |
|                | 전문계고 | 56<br>26.2%                               | 86<br>40.2%  | 50<br>23.4%  | 22<br>10.3% | 214<br>100% |                    |
| 전체             |      | 126<br>25.4%                              | 194<br>39.1% | 116<br>23.4% | 60<br>12.1%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7  |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68<br>24.1%                               | 96<br>34.0%  | 86<br>30.5%  | 32<br>11.3% | 282<br>100% | .78<br>df=3        |
|                | 전문계고 | 56<br>26.2%                               | 62<br>29.0%  | 68<br>31.8%  | 28<br>13.1% | 214<br>100% |                    |
| 전체             |      | 124<br>25.0%                              | 158<br>31.9% | 154<br>31.0% | 60<br>12.1%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8  |      | 가해 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할 때 '하지말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16<br>41.1%                              | 94<br>33.3%  | 46<br>16.3%  | 26<br>9.2%  | 282<br>100% | 10.2<br>5*<br>df=3 |
|                | 전문계고 | 104<br>48.6%                              | 34<br>15.9%  | 44<br>20.6%  | 32<br>15.0% | 214<br>100% |                    |
| 전체             |      | 220<br>44.4%                              | 128<br>25.8% | 90<br>18.1%  | 58<br>11.7%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9  |      |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12<br>39.7%                              | 98<br>34.8%  | 42<br>14.9%  | 30<br>10.6% | 282<br>100% | 3.66<br>df=3       |
|                | 전문계고 | 92<br>43.0%                               | 86<br>40.2%  | 26<br>12.1%  | 10<br>4.7%  | 214<br>100% |                    |
| 전체             |      | 204<br>41.1%                              | 184<br>37.1% | 68<br>13.7%  | 40<br>8.1%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10 |      | 성폭력을 당하려고 할 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 보다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20<br>42.6%                              | 96<br>34.0%  | 54<br>19.1%  | 12<br>4.3%  | 282<br>100% | 3.88<br>df=3       |
|                | 전문계고 | 104<br>48.6%                              | 76<br>35.5%  | 22<br>10.3%  | 12<br>5.6%  | 214<br>100% |                    |
| 전체             |      | 224<br>45.2%                              | 172<br>34.7% | 76<br>15.3%  | 24<br>4.8%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성폭력<br>대처방안 11 |      | 피해 학생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br>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32<br>46.8%                                 | 92<br>32.6%  | 38<br>13.5% | 20<br>7.1%  | 282<br>100% | 3.68<br>df=3 |
|                | 전문계고 | 106<br>49.5%                                 | 76<br>35.5%  | 28<br>13.1% | 4<br>1.9%   | 214<br>100% |              |
| 전체             |      | 238<br>48.0%                                 | 168<br>33.9% | 66<br>13.3% | 24<br>4.8%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12 |      | 성 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학교             | 일반고  | 104<br>36.9%                                 | 96<br>34.0%  | 48<br>17.0% | 34<br>12.1% | 282<br>100% | 1.93<br>df=3 |
|                | 실업고  | 76<br>35.5%                                  | 86<br>40.2%  | 36<br>16.8% | 16<br>7.5%  | 214<br>100% |              |
| 전체             |      | 180<br>36.3%                                 | 182<br>36.7% | 84<br>16.9% | 50<br>10.1% | 496<br>100% |              |

\*p<.05

일반고와 전문계고의 ‘성 폭력 대처방안’ 인식에서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5%(372명), 대처방안 교육 73.4%(364명), 가해학생 엄격히 처벌 79.4%(394명), 전문상담기관 필요 71%(352명),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 70.2%(348명),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 그 자리 피함 78.2%(388명), 단호하게 대처 79.9%(396명),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81.9%(406명), 대중매체 감시 73%(362명)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항목에 일반고 학생들은 ‘효과가 크다’ 41.1%, ‘매우 효과적이다’ 33.3%를 응답하였던 반면, 전문계고 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49.5%를 응답하여 이 대처방안에 대하여 전문계고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chi^2=8.18$ ,  $p<.05$ ). 또한 ‘가해 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라는 대처방안에 일반고 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 41.1%, ‘효과가 크다’ 33.3%를 응답하였던 반면, 실업고 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48.6%, ‘효

과가 적다'에 20.6%를 응답하여 이 대처방안에 대하여 전문계고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chi^2=10.25$ ,  $p<.05$ ).

### 3-2. 성별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방안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성별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1 |   |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120<br>47.6%                              | 80<br>32.3%  | 40<br>16.1%  | 10<br>4.0% | 250<br>100% | 20.73*<br>**<br>df=3 |
|                  | 여 | 52<br>21.1%                               | 136<br>55.3% | 50<br>20.3%  | 8<br>3.3%  | 246<br>100% |                      |
| 전체               |   | 170<br>34.4%                              | 216<br>43.7% | 90<br>18.2%  | 18<br>3.6%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2 |   | 신체적 폭력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76<br>30.4%                               | 74<br>29.6%  | 76<br>30.4%  | 24<br>9.6% | 250<br>100% | 6.38<br>df=3         |
|                  | 여 | 46<br>18.7%                               | 102<br>41.5% | 80<br>32.5%  | 18<br>7.3% | 246<br>100% |                      |
| 전체               |   | 122<br>24.6%                              | 176<br>35.5% | 156<br>31.5% | 42<br>8.5%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3 |   | 신체적 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여 처벌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108<br>42.7%                              | 88<br>35.5%  | 46<br>18.5%  | 8<br>3.2%  | 250<br>100% | .13<br>df=3          |
|                  | 여 | 100<br>40.7%                              | 92<br>37.4%  | 46<br>18.7%  | 8<br>3.3%  | 246<br>100% |                      |
| 전체               |   | 206<br>41.7%                              | 180<br>36.4% | 92<br>18.6%  | 16<br>3.2%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4 |   | 교내 신체적 폭력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68<br>27.2%                               | 96<br>38.4%  | 62<br>24.8%  | 24<br>9.6% | 250<br>100% | 4.97<br>df=3         |
|                  | 여 | 94<br>38.2%                               | 70<br>28.5%  | 66<br>26.8%  | 16<br>6.5% | 246<br>100% |                      |
| 전체               |   | 162<br>32.7%                              | 166<br>33.5% | 128<br>25.8% | 40<br>8.1%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5 |   | 교내 신체적 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72<br>28.2%                                | 58<br>23.4%  | 96<br>38.7%  | 24<br>9.7%  | 250<br>100% | 6.33<br>df=3 |
|                  | 여 | 70<br>28.5%                                | 86<br>35.0%  | 80<br>32.5%  | 10<br>4.1%  | 246<br>100% |              |
| 전체               |   | 140<br>28.3%                               | 144<br>29.1% | 176<br>35.6% | 36<br>6.9%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6 |   | 신체적 폭력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70<br>28.0%                                | 78<br>31.2%  | 68<br>27.2%  | 34<br>13.6% | 250<br>100% | 2.88<br>df=3 |
|                  | 여 | 74<br>30.1%                                | 96<br>39.0%  | 50<br>20.3%  | 26<br>10.6% | 246<br>100% |              |
| 전체               |   | 144<br>29.0%                               | 174<br>35.1% | 118<br>23.8% | 60<br>12.1%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7 |   | 신체적 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70<br>28.2%                                | 76<br>30.6%  | 78<br>31.5%  | 26<br>9.7%  | 250<br>100% | 5.37<br>df=3 |
|                  | 여 | 56<br>22.8%                                | 110<br>44.7% | 64<br>26.0%  | 16<br>6.5%  | 246<br>100% |              |
| 전체               |   | 123<br>25.5%                               | 186<br>37.7% | 142<br>28.7% | 40<br>8.1%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8 |   | 학교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담당학교로 방문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64<br>25.6%                                | 68<br>27.2%  | 82<br>32.8%  | 36<br>14.4% | 250<br>100% | 3.59<br>df=3 |
|                  | 여 | 52<br>21.1%                                | 88<br>35.8%  | 84<br>34.1%  | 22<br>8.9%  | 246<br>100% |              |
| 전체               |   | 116<br>23.4%                               | 156<br>31.5% | 166<br>33.5% | 58<br>11.7%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9 |   | 학교교육이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92<br>37.1%                                | 82<br>33.1%  | 52<br>21.0%  | 24<br>8.9%  | 250<br>100% | 7.27<br>df=3 |
|                  | 여 | 66<br>26.8%                                | 92<br>37.4%  | 78<br>31.7%  | 10<br>4.1%  | 246<br>100% |              |
| 전체               |   | 158<br>32.0%                               | 174<br>35.2% | 130<br>26.3% | 32<br>6.5%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10 |   |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위주의 대응책을 강화한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36<br>14.4%                       | 80<br>32.0%  | 82<br>32.8%  | 52<br>20.8%  | 250<br>100% | 5.78<br>df=3  |
|                   | 여 | 14<br>5.7%                        | 76<br>30.9%  | 92<br>37.4%  | 64<br>26.0%  | 246<br>100% |               |
| 전체                |   | 50<br>10.1%                       | 156<br>31.5% | 174<br>35.1% | 116<br>23.4%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11 |   | 학교주변의 PC방, 단란주점, 대화방 등 유해환경을 없앤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38<br>15.2%                       | 56<br>22.4%  | 80<br>32.0%  | 76<br>30.4%  | 250<br>100% | 8.40*<br>df=3 |
|                   | 여 | 30<br>12.2%                       | 60<br>24.4%  | 114<br>46.3% | 42<br>17.1%  | 246<br>100% |               |
| 전체                |   | 68<br>13.7%                       | 116<br>23.4% | 194<br>39.1% | 118<br>23.8% | 496<br>100% |               |
| 신체적 폭력<br>대처방안 12 |   | 지역사회 및 신민단체와 연계하여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52<br>20.8%                       | 82<br>32.8%  | 70<br>28.0%  | 46<br>18.4%  | 250<br>100% | 1.41<br>df=3  |
|                   | 여 | 46<br>18.7%                       | 92<br>37.4%  | 74<br>30.1%  | 34<br>13.8%  | 246<br>100% |               |
| 전체                |   | 98<br>19.8%                       | 174<br>35.1% | 144<br>29.0% | 80<br>16.1%  | 496<br>100% |               |

\*p<.05, \*\*\*p<.001

남·여 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 인식에서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8.1%(386명), 가해학생 엄격히 처벌 78.1%(386명), 교내 전문적인 상담기관필요 66.2%(328명),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으로 전환 67.2%(332명)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항목에 남자 고등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47.6%가 응답한 반면, 여자 고등학생들은 ‘효과가 크다’에 55.3%가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chi^2=20.73$ ,  $p<.001$ ).

또한 ‘학교 주변의 PC방, 단란주점, 대화방 등 유해환경을 없앤다.’라는 대처방안에서는 남자 고등학생들은 ‘효과가 적다’에 32%, ‘효과가 매우 적다’에 30.4%가 응답한 반면, 여자 고등학생들은 ‘효과가 적다’에 46.3%, ‘효과가 크다’에 24.4%를 응답하여 남·여 고등학생들 간의 신체적 폭력의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chi^2=8.40$ ,  $p<.05$ ).

<표 23> 성별 집단적 따돌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1 |   |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118<br>47.2%                             | 68<br>27.2%  | 50<br>20.0%  | 14<br>5.6%  | 250<br>100% | 17.01**<br>df=3   |
|                 | 여 | 58<br>23.6%                              | 116<br>47.2% | 60<br>24.4%  | 12<br>4.9%  | 246<br>100% |                   |
| 전체              |   | 176<br>35.5%                             | 194<br>37.1% | 110<br>22.2% | 26<br>5.2%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2 |   | 집단따돌림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54<br>21.6%                              | 100<br>40.0% | 66<br>26.4%  | 30<br>12.0% | 250<br>100% | 4.85<br>df=3      |
|                 | 여 | 34<br>13.8%                              | 116<br>47.2% | 78<br>31.7%  | 18<br>7.3%  | 246<br>100% |                   |
| 전체              |   | 88<br>17.7%                              | 216<br>43.5% | 144<br>29.0% | 48<br>9.7%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3 |   |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은 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118<br>47.2%                             | 62<br>24.8%  | 46<br>18.4%  | 24<br>9.6%  | 250<br>100% | 9.70<br>*<br>df=3 |
|                 | 여 | 84<br>34.1%                              | 94<br>38.2%  | 58<br>23.6%  | 10<br>4.1%  | 246<br>100% |                   |
| 전체              |   | 202<br>40.7%                             | 156<br>31.5% | 104<br>21.0% | 34<br>6.9%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   |                                            |              |              |             |             |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4 |   | 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76<br>30.4%                                | 74<br>29.6%  | 70<br>28.0%  | 30<br>12.0% | 250<br>100% | 7.20<br>df=3    |
|                 | 여 | 80<br>32.5%                                | 90<br>36.6%  | 68<br>27.6%  | 8<br>3.3%   | 246<br>100% |                 |
| 전체              |   | 156<br>31.5%                               | 164<br>33.1% | 138<br>27.8% | 38<br>7.7%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5 |   | 교내 집단따돌림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66<br>26.4%                                | 82<br>32.8%  | 74<br>29.6%  | 28<br>11.2% | 250<br>100% | 2.10<br>df=3    |
|                 | 여 | 60<br>24.4%                                | 92<br>37.4%  | 78<br>31.7%  | 18<br>6.5%  | 246<br>100% |                 |
| 전체              |   | 126<br>25.4%                               | 174<br>35.1% | 152<br>30.6% | 44<br>8.9%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6 |   | 집단따돌림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72<br>28.8%                                | 86<br>34.4%  | 68<br>27.2%  | 24<br>9.6%  | 250<br>100% | 5.21<br>df=3    |
|                 | 여 | 60<br>24.4%                                | 118<br>48.0% | 46<br>18.7%  | 22<br>8.9%  | 246<br>100% |                 |
| 전체              |   | 132<br>26.6%                               | 204<br>41.1% | 114<br>23.0% | 46<br>9.3%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7 |   |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82<br>32.8%                                | 58<br>23.2%  | 62<br>24.8%  | 48<br>19.2% | 250<br>100% | 14.42**<br>df=3 |
|                 | 여 | 64<br>26.0%                                | 82<br>33.3%  | 86<br>35.0%  | 14<br>5.7%  | 246<br>100% |                 |
| 전체              |   | 146<br>29.4%                               | 140<br>28.2% | 148<br>29.8% | 62<br>12.5%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8 |   | 따돌림의 아픔이 가해 학생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114<br>45.6%                               | 78<br>31.2%  | 40<br>16.0%  | 18<br>7.2%  | 250<br>100% | 1.88<br>df=3    |
|                 | 여 | 116<br>47.2%                               | 88<br>35.8%  | 32<br>13.0%  | 10<br>4.1%  | 246<br>100% |                 |
| 전체              |   | 230<br>46.4%                               | 166<br>33.5% | 72<br>14.5%  | 28<br>5.6%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9 |   | 교사가 학급을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84<br>33.6%                                | 98<br>39.2%  | 50<br>20.0%  | 18<br>7.2%  | 250<br>100% | 5.59<br>df=3    |
|                 | 여 | 66<br>26.8%                                | 106<br>43.1% | 68<br>27.6%  | 6<br>2.4%   | 246<br>100% |                 |
| 전체              |   | 150<br>30.2%                               | 204<br>41.1% | 118<br>23.8% | 24<br>4.8%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10 |   | 교내 순찰을 강화한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78<br>31.2%                         | 60<br>24.0%  | 68<br>27.2%  | 44<br>17.6%  | 250<br>100% | 7.02<br>df=3  |
|                  | 여 | 52<br>21.1%                         | 84<br>34.1%  | 82<br>33.3%  | 28<br>11.4%  | 246<br>100% |               |
| 전체               |   | 130<br>26.2%                        | 144<br>29.0% | 150<br>30.2% | 72<br>14.5%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11 |   | 소집단 활동을 폭 넓게 활용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54<br>21.6%                         | 98<br>39.2%  | 82<br>32.8%  | 16<br>6.4%   | 250<br>100% | 1.34<br>df=3  |
|                  | 여 | 42<br>17.1%                         | 92<br>37.4%  | 92<br>37.4%  | 20<br>8.1%   | 246<br>100% |               |
| 전체               |   | 96<br>19.4%                         | 190<br>38.3% | 174<br>35.1% | 36<br>7.3%   | 496<br>100% |               |
| 집단따돌림<br>대처방안 12 |   |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을 동아리 활동 등 단체활동에 참여시킨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68<br>27.2%                         | 78<br>31.2%  | 52<br>20.8%  | 52<br>20.8%  | 250<br>100% | 7.91*<br>df=3 |
|                  | 여 | 46<br>18.7%                         | 60<br>24.4%  | 88<br>35.8%  | 52<br>21.1%  | 246<br>100% |               |
| 전체               |   | 114<br>23.0%                        | 138<br>27.8% | 140<br>28.2% | 104<br>21.0% | 496<br>100% |               |

p<.05, \*\*p<.01

남·여 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대처방안’ 인식에서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2.6%(370명), 가해학생 엄격히 처벌 72.2%(358명), 따돌림의 아픔이 가해학생 자신에게 되돌아 감 79.9%(396명), 학급의 개방적 민주적 운영 71.3%(354명)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항목에 남자고등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47.26%가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효과가 크다’에 47.2%가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집단 따돌림의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chi^2=17.01$ ,  $p<.01$ ). 그리고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항목에 남자고등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32.8%, ‘효과가 크다’에 23.2%, ‘효과가 적다’

에 24.8%를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효과가 적다’에 35%, ‘효과가 크다’에 33.3%를 응답하여 두 집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을 동아리 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시킨다’ 항목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은 ‘효과가 크다’에 31.2%, ‘매우 효과적이다’에 27.2%를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효과가 적다’에 35.8%가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표 24> 성별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분석

| 성폭력<br>대처방안 1 |   |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              |             |             | 전체          | $\chi^2$        |
|---------------|---|-----------------------------------------|--------------|-------------|-------------|-------------|-----------------|
|               |   | 매우 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 매우 적다   |             |                 |
| 성별            | 남 | 122<br>48.8%                            | 66<br>26.4%  | 42<br>16.8% | 20<br>8.0%  | 250<br>100% | 10.21**<br>df=3 |
|               | 여 | 78<br>31.7%                             | 106<br>43.1% | 48<br>19.5% | 14<br>5.7%  | 246<br>100% |                 |
| 전체            |   | 200<br>40.3%                            | 172<br>34.7% | 90<br>18.1% | 34<br>6.9%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2 |   |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 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 매우 적다   |             |                 |
| 성별            | 남 | 84<br>33.6%                             | 98<br>39.2%  | 40<br>16.0% | 28<br>11.2% | 250<br>100% | 3.99<br>df=3    |
|               | 여 | 82<br>33.3%                             | 100<br>40.7% | 52<br>21.1% | 12<br>4.9%  | 246<br>100% |                 |
| 전체            |   | 166<br>33.5%                            | 198<br>39.9% | 92<br>18.5% | 40<br>8.1%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3 |   | 성폭력 피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 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 매우 적다   |             |                 |
| 성별            | 남 | 138<br>55.2%                            | 48<br>19.2%  | 42<br>16.8% | 22<br>8.8%  | 250<br>100% | 12.74**<br>df=3 |
|               | 여 | 128<br>52.0%                            | 80<br>32.5%  | 36<br>14.6% | 2<br>.8%    | 246<br>100% |                 |
| 전체            |   | 266<br>53.6%                            | 128<br>25.8% | 78<br>15.7% | 24<br>4.8%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4 |   | 교내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             |             | 전체          | $\chi^2$        |
|               |   | 매우 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 매우 적다   |             |                 |
| 성별            | 남 | 74<br>29.6%                             | 98<br>39.2%  | 48<br>19.2% | 30<br>12.0% | 250<br>100% | 6.65<br>df=3    |
|               | 여 | 108<br>43.9%                            | 72<br>29.3%  | 48<br>19.5% | 18<br>7.3%  | 246<br>100% |                 |
| 전체            |   | 182<br>36.7%                            | 170<br>34.3% | 96<br>19.4% | 48<br>9.7%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성폭력<br>대처방안 5     |   | 교내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              |             | 전 체         | $\chi^2$      |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58<br>23.2%                               | 100<br>40.0% | 62<br>24.8%  | 30<br>12.0% | 250<br>100% | 7.89*<br>df=3 |
|                   | 여 | 94<br>38.2%                               | 66<br>26.8%  | 60<br>24.4%  | 26<br>10.6% | 246<br>100% |               |
| 전 체               |   | 152<br>30.6%                              | 166<br>33.5% | 122<br>24.6% | 56<br>11.3%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6     |   | 성폭력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54<br>21.6%                               | 88<br>35.2%  | 70<br>28.0%  | 38<br>15.2% | 250<br>100% | 6.72<br>df=3  |
|                   | 여 | 72<br>29.3%                               | 106<br>43.1% | 46<br>18.7%  | 22<br>8.9%  | 246<br>100% |               |
| 전 체               |   | 126<br>25.4%                              | 194<br>39.1% | 116<br>23.4% | 60<br>12.1%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7     |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68<br>27.2%                               | 76<br>30.4%  | 74<br>29.6%  | 32<br>12.8% | 250<br>100% | .93<br>df=3   |
|                   | 여 | 56<br>22.8%                               | 82<br>33.3%  | 80<br>32.5%  | 28<br>11.4% | 246<br>100% |               |
| 전 체               |   | 124<br>25.0%                              | 158<br>31.9% | 154<br>31.0% | 60<br>12.1%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8     |   | 가해 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할때 '하지말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110<br>44.0%                              | 64<br>25.6%  | 38<br>15.2%  | 38<br>15.2% | 250<br>100% | 3.87<br>df=3  |
|                   | 여 | 110<br>44.7%                              | 64<br>26.0%  | 52<br>21.1%  | 20<br>8.1%  | 246<br>100% |               |
| 전 체               |   | 220<br>44.4%                              | 128<br>25.8% | 90<br>18.1%  | 58<br>11.7%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9     |   |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112<br>44.8%                              | 84<br>33.6%  | 34<br>13.6%  | 20<br>8.0%  | 250<br>100% | 1.66<br>df=3  |
|                   | 여 | 92<br>37.4%                               | 100<br>40.7% | 34<br>13.8%  | 20<br>8.1%  | 246<br>100% |               |
| 전 체               |   | 204<br>41.1%                              | 184<br>37.1% | 68<br>13.7%  | 40<br>8.1%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br>10 |   | 성폭력을 당하려고 할 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 보다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매우적다     |             |               |
| 성별                | 남 | 122<br>48.8%                              | 74<br>29.6%  | 40<br>16.0%  | 14<br>5.6%  | 250<br>100% | 2.99<br>df=3  |
|                   | 여 | 102<br>41.5%                              | 98<br>39.8%  | 36<br>14.6%  | 10<br>4.1%  | 246<br>100% |               |
| 전 체               |   | 224<br>45.2%                              | 172<br>34.7% | 76<br>15.3%  | 24<br>4.8%  | 496<br>100% |               |

〈다음 쪽에 계속〉

〈앞 쪽에서 계속〉

| 성폭력<br>대처방안 11 |   | 피해 학생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              |             |             | 전 체         | $\chi^2$      |
|----------------|---|-------------------------------------------|--------------|-------------|-------------|-------------|---------------|
|                |   | 매우 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 매우 적다   |             |               |
| 성 별            | 남 | 116<br>46.4%                              | 96<br>38.4%  | 26<br>10.4% | 12<br>4.8%  | 250<br>100% | 3.26<br>df=3  |
|                | 여 | 122<br>49.6%                              | 72<br>29.3%  | 40<br>16.3% | 12<br>4.9%  | 246<br>100% |               |
| 전 체            |   | 238<br>48.0%                              | 168<br>33.9% | 66<br>13.3% | 24<br>4.8%  | 496<br>100% |               |
| 성폭력<br>대처방안 12 |   | 성 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              |             |             | 전 체         | $\chi^2$      |
|                |   | 매우 효과적                                    | 효과가 크다       | 효과가 적다      | 효과가 매우 적다   |             |               |
| 성 별            | 남 | 102<br>40.8%                              | 70<br>28.0%  | 48<br>19.2% | 30<br>12.0% | 250<br>100% | 8.29*<br>df=3 |
|                | 여 | 78<br>31.7%                               | 112<br>45.5% | 36<br>14.6% | 20<br>8.1%  | 246<br>100% |               |
| 전 체            |   | 180<br>36.3%                              | 182<br>36.7% | 84<br>16.9% | 50<br>10.1% | 496<br>100% |               |

\*p<.05, \*\*p<.01

남·여 고등학생의 ‘성 폭력 대처방안’ 인식에서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5%(372명), 성 폭력 대처방안 교육 73.4%(364명), 가해학생 엄격히 처벌 79.4%(394명), 전문상담기관 필요 71%(352명), 하지말라는 의사표현 분명히 70.2%(348명), 불안을 느낄 때 언제든지 그 자리 피함 78.2%(388명), 단호하게 대처 79.9%(396명),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81.9%(406명), 대중매체 감시 73%(362명)로 나타났다. 특히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별 비교에서는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항목에 남자고등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48.8%가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효과가 크다’에 43.1%가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chi^2=10.21$ ,  $p<.01$ ). ‘성 폭력 가해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항목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55.2%, ‘효과가 크다’에 19.2%를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52%, ‘효과가 크다’에 32.5%가 응답하여 남자고등학생들이 보다 이 대처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항목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은 ‘효과가 크다’에 40%, ‘효과가 적다’에 24.8%를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38.2%, ‘효과가 크다’에 26.8%를 응답하여 여자고등학생들이 이 대처 방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항목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은 ‘매우 효과적이다’에 40.8%를 응답한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은 ‘효과가 크다’에 45.5%를 응답하여 남자고등학생들이 이 대처 방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공통된 7개 설문내용 중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두 항목은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의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끝으로 공통된 7개 설문내용 중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가해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교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세 항목은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의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 2.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 56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일반고·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여자고등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가 나타나는지를 설문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통계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교폭력 학교별·성별 실태는 어떠한가?

신체적 폭력 피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2.5%(62명)의 학생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58.1%(36명), 같은 학교 선후배 22.6%(17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보다 폭력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여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선후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가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2.9%(64명)의 학생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가 66%(42명), 같은 학교 선후배 16%(10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폭력가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정선경(1998)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백서(2003)에도 여자 범죄자보다 남자 범죄자가 월등히 많음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부정적인 자극을 통하여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여학생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소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인 활동이 훨씬 더 많다는 점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여학생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폭력을 가한 상대에 대해서도 남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여자고등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이 많았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 예방에 있어서 여자고등학생보다는 남자고등학생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학생은 친구간의 유대관계, 여학생은 선후배간 관계 정립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따돌림 피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4%(22명)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100%(22명)로 나타났다. 따돌림 현상은 교내에서만 일어나고 있어 학교의 적극적 지도가 요청된다 하겠다. 학교별 비교에서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서는 여자고등학생들이 남자고등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구자경(2003)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집단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같은 학교 친구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가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0.5%(52명)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 100%(52명)로 나타나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

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예방에 있어서는 남자고등학생보다는 여자고등학생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교외에서보다는 교내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해결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장소가 학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성 폭력 피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2%(26명)의 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76.9%(20명), 같은 학교 선후배 7.7%(2명), 모르는 사람 7.7%(2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 폭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별·성별 비교에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만 표집한 한계는 있지만, 특히 남녀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한국성폭력상담소(1999)의 통계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 세대 변화를 실감케 한다.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모두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전문계고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학교주변 성인도 다수 있었다.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남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여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 이외에 모르는 사람과 같은 학교 선후배도 다수 있었다.

성 폭력 가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2%(16명)의 학생이 성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폭력을 당한 사람은 같은 학교 선후배 75%(12명), 학교주변 성인 25%(4명)로 나타났다. 학교별·성별 비교에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남녀사이의 비교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연구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을 당한 상대에

대해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같은 학교 선후배가 많았다. 이번 성폭력 피해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남녀공학으로 인하여 이성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성친구와 동성친구간의 구분의식이 많이 희박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특목고의 우수학생 특별전형과 일반고의 커트라인 하락으로 일반고와 전문계고간의 간격이 많이 좁혀져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여학생 중심·문제아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모든 남·여 고등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같은 학교 친구가 많다는 점에서 이성 친구 간에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 하겠다. 전문계고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학교주변 성인들로부터 피해 사실도 다수 있었다. 이것은 전문계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아, 사회적 공간에서 아르바이트 등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같은 학교 선후배가 많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 정서상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연구문제2. 학교폭력 유형별(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

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87.5%(434명),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가해학생의 자기중심적 사고 84.7%(420명), 가해학생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78.7%(390명), 폭력에 대하여 학교의 적절치 못한 대처 81.9%(406명), 사소한 감정 79%(392명)로 나타나, 위의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가해학생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요인은 최미라(2005) 연구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원인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면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에서는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합당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폭력예방에 대한 정신적 교육과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생활에 대해 애정 어린 지도가 뒤따라야 하겠다. 끝으로 징계위원회의 역할 제고와 더불어 폭력에 대한 학교의 엄격한 교칙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하기 때문 85.5%(424명), 따돌림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80.3%(398명), 집단따돌림에 대한 학교의 미흡한 대처 79%(392명), 피해학생이 잘난 척하는 등 당할 만한 행동 81.9%(406명)

로 나타나, 위의 항목에 집단따돌림의 발생원인으로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하는 요인은 이재구(2004)의 집단따돌림의 사례분석과 대처방안 연구에서 집단에의 동조가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신사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동조압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또래집단과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이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집단에 동조현상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청소년의 행동 및 정신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동조압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집단동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을 망각하지 않는 주체적 사고력과 사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 자신의 생각이 전체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발표력 교육 등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먼저 보지 말고, 주변 친구들의 관심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노력과 집단의 분위기에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하거나 튀는 행동을 삼가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는 물론이고, 집단따돌림 현상이 대부분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집단따돌림에 개입하여 예방교육과 더불어 교칙에 근거한 엄정한 처벌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해 학생의 성충동 85.9%(426

명), 가해 학생 또래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성 정보 76.6%(380명),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매체 79.4%(394명), 성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77.5%(384명)로 나타나, 위의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대중매체의 영향은 한승재(2005)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의 사회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모방범죄 예방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들은 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해학생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성 정보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반응은 전문계고 학생들은 대학입시의 중압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호기심이 많은 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여 유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가해 학생의 성충동에서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반응은 여학생들은 경험을 덜 할 수밖에 없는 남녀사이의 생리적 현상 차이로 생각되며, 남학생들은 누구든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하겠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성지식과 성 정보가 전달되어, 잘못된 성지식과 성정보로 인한 성폭력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대중매체의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성 충동 문제는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 따른 성적욕구 차이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전달이 있어야 하겠다. 덧붙여 성폭력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드러내 놓고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문제 3. 학교폭력 유형별(신체적 폭력 · 집단따돌림 ·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신체적 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78.1%(386명),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8.1%(386명), 신체적 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운영 66.2%(328명), 학교교육이 성적 위주에서 전인교육으로 전환 67.2%(332명)로 나타나, 위의 항목에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신체적 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기관 필요는 민경두(2004)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담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기관 설치는 신체적 폭력의 합리적인 대처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리고 교내 신체적 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 학교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담당학교를 방문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전문계고 학생들이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교내 신체적 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은(차광수, 2000; 최병찬, 2003) 연구결과에서도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처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고, 또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겠다. 담당경찰관 담당학교 수시 방문은 불량 학생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단속하거나, 순찰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폭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학생들로 하여금 학

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대처방안으로 생각된다.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것은 신체적·생리적 차이로 보여진다.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고, 남성다움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교 주변의 PC방, 단란주점, 대화방 등 유해환경 정비는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원명희(2002)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예방의 지역사회의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쾌락을 부추기는 퇴폐 향락적 분위기와 유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학교폭력은 근절되기 어려우며,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과감한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해환경정비를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여학생들이 높이 인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린 여학생들을 유혹하는 환경들이 학교주변에 즐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밖에서 받는 여러 가지 유혹은 결국 불량학생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폭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과 병행하여 가해학생을 교칙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가해 학생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내에 전문적인 상담기관 설치하여 학생들이 고민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도 청소년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학교주변 환경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

다. 또한 피해학생 스스로도 평소의 운동이나 호신술 등을 배워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따돌림의 아픔이 가해 학생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79.9%(396명),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기 72.2%(358명), 학급의 개방적이고 민주적 운영 71.3%(354명),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2.6%(360명)로 나타나 위의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따돌림의 아픔이 가해학생 자신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백운학(1998)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학급의 개방적이고 민주적 운영은 구자경(2003)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의 학교대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담임교사의 개방적이고 민주적 학급 운영은 모든 학생들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되고, 각자의 임무가 공평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학급운영 원칙과 상벌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정함으로써, 학급 내에서 선택된 자와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교내 집단 따돌림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은 전문계고 학생들에 비해 일반고 학생들이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학생들은 피해신고 센터설치를 통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피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를 원하고 있다 하겠다.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을 동아리 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가,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 필요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집단따돌림 대처 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공부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건전한 공간부족과 동아리 활동 등 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학교현실을 반영한 답변으로 여겨진다.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활동을 많이 하

기 때문에 체력을 단련하고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운동 시설·놀이 공간·함께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등이 더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자신의 따돌림 극복의지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집단따돌림이 허용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따돌림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 입장이 되어 학교생활을 해보게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교사가 학급을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선택된 자나 소외된 자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집단따돌림 예방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덧붙여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해결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장소는 바로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피해 학생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 81.9%(406명),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79.4%(394명),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 78.2%(388명), 성폭력을 당하려고 할 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단호하게 대처 79.9%(396명),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5%(372명), 성폭력 대처방안 교육 73.4%(364명),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기관 운영 71%(352명), 성적인 행동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 70.2%(348명), 성 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 감시 73%(362명)로 나타나, 위의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피해 학생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가장 선호하는 성 폭력 대처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간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답변이라

하겠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 폭력 피해는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성적 후유증을 남기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인 절차 변화와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가해 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전문계고 학생들이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미경(2001)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소극적 저항이 긍정적인 의사로 오인될 소지를 줄여 성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 것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이다.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기,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남자의 속성, 관용보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대처방안이라 생각된다. 특히 남성을 주 고객으로 삼는 선정적 광고에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교내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은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들이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성 폭력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학생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드러내 놓고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순간적인 욕망에 의한 경우나 이

성을 잃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가정·교육 체제뿐만 아니라, 이런 체제를 둘러싼 사회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대중매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노력이 뒤따른다면 성폭력 문제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모든 (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 폭력유형에 합리적인 대처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어, 학생들의 여러 가지 비행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예방교육과 더불어 교칙에 근거한 엄격한 처벌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및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학교별·성별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폭력 유형별(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내 소재하고 있는 2학년 일반계 고등학교(남·여 공학) 4개교 320명과 전문계고 고등학교(남·여 공학) 4개교 24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지도교수의 조언을 받아, 기존의 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일반사항에 대한 기초조사 2문항, 학교폭력 피·가해실태 12문항,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관한 내용 12문항,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 12문항,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관한 내용 12문항,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 12문항, 성폭력 발생원인에 관한 내용 12문항, 성폭력 대처 방안

에 관한 내용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폭력의 원인과 대처 방안에서 1번부터 7번까지는 각각 공통적인 질문을 통하여 가장 인식이 높은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을 알아보았으며, 폭력의 유형에 따른 학교별·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폭력 피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2.5%(62명)의 학생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58.1%(36명), 같은 학교 선후배 22.6%(17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보다 폭력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여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선후배가 많아 두 집단 간의 실태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신체적 폭력 가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2.9%(64명)의 학생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가 66%(42명), 같은 학교 선후배 16%(10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보다 폭력가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가한 상대에 대해서도 남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여자고등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이 많아 두 집단 간 실태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4%(22명)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100%(22명)로 나타났다. 따돌림 현상은 교내에서만 일어나고 있어 학교의 적극적 지도가 요청된다 하겠다. 학교별 비교에서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여자고등학생들이 남자고등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학교 친구로 나타나,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집단따돌림 가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0.5%(52명)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 100%(52명)로 나타나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성 폭력 피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2%(26명)의 학생이 성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76.9%(20명), 같은 학교 선후배 7.7%(2명), 모르는 사람 7.7%(2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 폭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별·성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전문계고에서는 모르는 사람·학교주변 성인도 다수 있었다. 남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여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 이외에 모르는 사람·같은 학교 선후배도 다수 있었다.

여섯째, 성폭력 가해 실태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2%(16명)의 학생이 성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폭력을 당한 사람은 같은 학교 선후배 75%(12명), 학교주변 성인 25%(4명)로 나타났다. 일반고와 전문계

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곱째,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1.9%(406명)’,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87.5%(434명)’,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가해 학생의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84.7%(420명)’, ‘가해 학생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다 78.7%(390명)’, ‘사소한 감정 때문이다 79%(392명)’로 나타나, 상기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고와 전문계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사이에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목에서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 보다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덟째,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피해 학생이 잘난 척하는 등 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81.9%(406명)’, ‘따돌림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79%(392명)’, ‘따돌림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80.3%(398명)’,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85.5%(424명)’로 나타나, 상기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다수 학생의 또래집단 분위기 동조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아홉째, 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성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77.5%(384명)’,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매체 때문이다 79.4%(390명)’, ‘가해 학생의 성충동 때문이다

85.9%(426명)', '가해 학생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성 정보 때문이다 76.6%(380명)'로 나타나, 상기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가해학생의 성충동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해학생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 성 정보 때문이다.' 항목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성별에서는 '가해 학생의 성충동 때문이다.' 항목에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열 번째,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78.1%(386명)', '신체적 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78.1%(386명)', '교내 신체적 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66.2%(328명)', '학교교육이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67.2%(332명)'로 나타나, 상기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교내 신체적 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학교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담당학교를 방문한다' 항목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성별에서는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항목에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학교 주변의 PC방·단란주점·대화방 등 유해환경을 없앤다' 항목에서는 여자고등학생들이 남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열한 번째,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72.6%(360명)',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

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72.2%(358명)', '따돌림의 아픔이 가해 학생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79.9%(396명)', '교사가 학급을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71.3%(354명)'로 나타나 상기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교내 집단따돌림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항목에 일반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에 비해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성별에서는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을 동아리 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시킨다' 항목에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열두 번째,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성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79.4%(394명)',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간다 78.2%(388명)', '성폭력을 당하려고 할 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79.9%(396명)', '피해 학생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81.9%(406명)',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75%(372명)', '성폭력 대처방안을 교육한다 73.4%(364명)',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71%(352명)', '성폭력을 당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대처한다 79.9%(396명)',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73%(362명)'로 나타나 상기 항목에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가해 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항목에서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성별에서는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성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항목에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교내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항목에서는 여자고등학생들이 남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열세 번째, 공통된 7개 설문내용 중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두 항목은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의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열네 번째, 공통된 7개 설문내용 중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교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세 항목은 일반고와 전문계고, 남자고등학생과 여자고등학생 모두 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의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및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이고 근원적으로 접근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설문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가. 학교폭력 학교별·성별 실태

첫째, 신체적 폭력 피해 실태에서는 최근 1년 동안 12.5%(62명)의 학생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58.1%(36명), 같은 학교 선후배 22.6%(17명), 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보다 폭력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남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여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선후배가 많았다.

둘째, 신체적 폭력 가해 실태에서는 최근 1년 동안 12.9%(64명)의 학생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폭력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가 66%(42명), 같은 학교 선후배 16%(10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보다 폭력가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가한 상대에 대해서도 남자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여자고등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이 많았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 실태에서는 최근 1년 동안 4.4%(22명)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100%(22명)로 나타났다. 따돌림 현상은 교내에서만 일어나고 있어 학교의 적극적 지도가 요청된다 하겠다. 그리고 여자고등학생들이 남자고등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따돌림 가해 실태에서는 최근 1년 동안 10.5%(52명)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돌림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 100%(52명)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실태에서는 최근 1년 동안 5.2%(26명)의 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76.9%(20명), 같은 학교 선후배 7.7%(2명), 모르는 사람 7.7%(2명)로 나타나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 폭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구대상 모두 같은 학교 친구가 많았으나, 전문계고에서는 모르는 사람·학교주변 성인도 다수 있었고, 여자고등학생은 모르는 사람·같은 학교 선후배도 다수 있었다.

여섯째, 성폭력 가해 실태에서는 최근 1년 동안 3.2%(16명)의 학생이 성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폭력을 당한 상대는 같은 학교 선후배 75%(12명), 학교주변 성인 25%(4명)로 나타났다.

#### 나.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첫째,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폭력에 대해 학교의 적절치 못한 대처 81.9%(406명)’,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87.5%(434명)’,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가해 학생의 자기중심적 사고 84.7%(420명)’, ‘가해 학생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78.7%(390명)’, ‘사소한 감정 79%(392명)’로 나타나, 연구대상 모두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학교의 적절치 못한 대처에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보다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피해 학생이 잘난 척하는 등 당할 만한 행동 81.9%(406명)’, ‘따돌림에 대해 학교의 적절치 못한 대처 79%(392명)’, ‘따돌림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80.3%(398명)’,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 85.5%(424명)’로 나타나, 연구대상 모두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다수 학생의 또래집단 분위기 동조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성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 77.5%(384명)’,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매체 79.4%(390명)’, ‘가해 학생의 성충동 85.9%(426명)’, ‘가해 학생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성 정보 76.6%(380명)’로 나타나, 연구대상 모두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가해학생의 성충동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해학생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성 정보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발생원인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해 학생의 성충동에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 다.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첫째,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8.1%(386명)’, ‘신체적 폭력 가해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78.1%(386명)’, ‘교내 신체적 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운영 66.2%(328명)’, ‘학교교육이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전환 67.2%(332명)’로 나타나, 연구대상 모두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교내 신체적 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 학교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담당학교를 방문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에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학교 주변의 PC방·단란주점·대화방 등 유해환경 철거에서는 여자고등학생들이 남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신체적 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기 72.6%(360명)’,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한 처벌 72.2%(358명)’, ‘따돌림의 아픔이 가해학생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식 79.9%(396명)’, ‘교사가 학급을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 71.3%(354명)’로 나타나, 연구대상 모두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교내 집단따돌림 폭력 피해 신고센터

터를 설치 운영에 일반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에 비해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을 동아리 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 등에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집단따돌림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셋째,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성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한 처벌 79.4%(394명),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 78.2%(388명)’, ‘성폭력을 당하려고 할 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단호한 대처 79.9%(396명)’, ‘피해학생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 81.9%(406명)’,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75%(372명)’, ‘성폭력 대처방안 교육 73.4%(364명)’,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 71%(352명)’, ‘성폭력을 당하려고 할 때 단호한 대처 79.9%(396명)’,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 73%(362명)’로 나타나, 연구대상 모두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피해학생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가해 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에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성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한 처벌에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교내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에서는 여자고등학생들이 남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넷째, 학교폭력 발생원인 공통 7개 설문내용 중 폭력에 대한 학교의 적절

치 못한 대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행위는 연구대상 모두에게서 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의 발생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다섯째, 학교폭력 대처방안 공통 7개 설문내용 중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갖기, 가해 학생 교칙에 따른 엄격한 처벌, 교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운영은 연구대상 모두에게서 신체적 폭력·집단따돌림·성폭력의 대처방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 라. 시사점

첫째, 신체적 폭력 실태에서는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보다 폭력의 피·가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중점을 두어 예방과 치료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 대인관계기술 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남학생은 친구간의 유대관계, 여학생은 선후배간 관계를 고려한 지도가 뒤따라야 하겠다.

둘째, 집단따돌림 실태에서는 여자고등학생들이 남자고등학생들보다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중점을 두어 예방과 치료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따돌림 현상이 교외에서보다는 교내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해결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장소가 학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 학교생활에서 타인과의 공감능력·대화기술능력·대인관계기술능력·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뒤따라야 하겠다.

셋째, 성폭력 실태에서는 일반고·전문계고·남자고등학교·여자고등학교 모두 피·가해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 지금까지의 여학생 중심·문제아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모든 남·여 고등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성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평소 가까이에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 폭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이성과의 관계에 분명한 의사표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 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넷째,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인식에서는 폭행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해학생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합당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되며, 징계위원회의 역할 제고와 더불어 폭력에 대한 학교의 엄격한 교칙 적용이 요구되며,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교내에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고민하는 분야에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도 청소년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학교주변 환경을 정화시켜야 할 것이며, 피해학생 스스로도 평소의 운동이나 호신술 등을 배워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의 적극적 대처가 요망된다.

다섯째, 집단따돌림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인식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성 중 하나인 자기의 생각과 무관하게 집단에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신만을 먼저 보지 말고 주변 친구들의 관심 분야에 관

심을 갖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집단의 분위기에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하거나 튀는 행동을 삼갈 것이며, 피해자 자신도 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사가 학급을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선택된 자나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집단따돌림이 허용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 입장이며 학교생활을 해보게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해결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장소는 바로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폭력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인식에서는 예방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성지식과 성 정보가 전달되어, 잘못된 성지식과 성정보로 인한 성폭력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대중매체의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도 뒤따라야 할 것이며,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며,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 따른 성적욕구 차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전달도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가정·교육 체제뿐만 아니라, 이런 체제를 둘러싼 성을 상품화하지 않는 사회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도 요구된다 하겠다. 덧붙여 성폭력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드러내 놓고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학교폭력에 대해서만은 학교가 예방교육과 더불어 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징계위원회 역할 제고 등을 통하여, 학교가 교내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학교의 여러 조건이 원인이 되어 폭력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폭력 신고자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호신술이나 발표력 교육 등을 통하여 자신감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내에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희 (2002).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14권 2호, pp. 323-353
- 강정근(2000).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학위논문.
- 구자경(2003).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7호, pp. 330-342
- 권이중(1997). 학교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 광주광역시 광주홍사단학교 폭력근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 87
- 김경안(1996).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아(2002).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2003).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실태 및 대책,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순식(2001).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연숙(2005). 청소년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 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종오(2005). 하위문화요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준호(1996).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치안정책 연구원, 제 4집, p. 18-37
- 김진훈(2005).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학위 논문
- 김창대(1999). 집단 따돌림 해결을 위한 가정 모델, 「제 2회 청소년상담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서울시 청소년종합 상담실, pp. 11-12

- 김혜원, 이해경(2002). **고등학생들의 성행동 경험 분석**, 청소년학 연구, pp. 247-272
- 문애희(1997).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김준호, 임영식, 광금주, 최지영, 박병식, 박효정, 이규미, 임재연, 정규원, 김충식, 이정희, 신순갑, 진태원, 장현우, 박종효, 장맹배, 강주현, 이유미, 이주연, 박명진(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 민경두(200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방안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근, 김헌수(1992). **성비행 청소년의 가족역동**, 신경정신의학지, pp. 604-625
- 박미자(1999). **청소년의 비행요인 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도(2001).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공공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논문
- 박종운, 김삼곤(2003).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 폭력 유형 분석 및 대안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pp. 181-197
- 박진규(2000). **청소년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일 고찰**, 「청소년학연구」, 7권 2호
- 백운학(1999).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현상의 실태와 대응방안**, 재활심리연구 제6집 제 1호, pp. 225-226
- 백운학(1999).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현상의 실태와 대응방안**, 재활심리연구소, 제6집 1호. pp223-244
- 소완섭(2003). **청소년 집단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2000).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학생생활연구, pp. 129-130

- 안재록(2003). **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 춘(1998). **사회학 개론**, 서울, 민영사, pp. 204-205
- 양창국(2003). **성폭력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가정사역목회학과 가정사역전공, 석사학위논문
- 원명희(200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남(1999).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근(2002).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태도와 학교 폭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희(2001).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명자(2004).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명호(2000).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예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2001). **성폭력 실태와대책**, 생명문화총서 4집, pp. 157-175
- 이미희(2006). **학교폭력 가해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수준 및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 이성구(2000). **비행청소년 이해**, 서울, 도서출판 제 3공간, pp.117-120
- 이은미(2000). **청소년 학교폭력의 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구(2004). **집단따돌림의 사례 분석과 대처 방안**,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조(2002). **학교폭력의 예방과 중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대양(1994). 음란폭력물의 유해성 논의와 모방범죄, 민생치안연구소 pp. 233-255
- 정선경(2002).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경(2001). 학교폭력의 실태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6).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광준(1998). 성폭력예방과 대책 법학논총, pp. 212-223
- 진교진(1999). 학교 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숭실대학교 교육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 진영학(2004).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차광수(2000).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최미라(2005).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가정폭력 경험의 설명력 비교,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병찬(2003).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진승(2000). 중학생의 성별· 학년별 및 가정환경 변인별 학교폭력경향성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나눔터, 제 29호, p. 10
- 한국청소년 개발원(1996). 청소년 문제론, 서울, 서원, pp. 24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6).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p. 39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p. 40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2003). 청소년 문제 행동-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pp. 461-491

한승재(2005).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경미(2004). 학교폭력 관련 대응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소년보호학회,  
소년보호연구 제 7호, pp. 46



##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고,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학생의 개인적인 정보도 절대 공개 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되오나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7년 4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안 용 진 드림

※ 일반적인 사항 대해 해당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 |                  |       |       |
|------------------|-------|-------|
| 1.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 ① 일반고 | ② 실업고 |
| 2. 성별은?          | ① 남   | ② 여   |

**I. 학교폭력 피해 실태에 대해 해당 번호에 V표를 해주십시오.**

1. 최근 1년 동안 나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주변 청소년 등으로부터 뺨, 얼굴, 머리 등 신체의 일부를 **맞은**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1-1. 여러분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없다'에 V한 학생은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① 모르는 사람              ② 같은 학교 친구              ③ 같은 학교 선·후배              ④ 다른 학교 학생  
 ⑤ 학교주변 청소년              ⑥ 학교주변 성인              ⑦ 기타 : \_\_\_\_\_
2. 최근 1년 동안 나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및 선·후배, 타학교 학생, 학교주변 청소년 등의 뺨, 얼굴, 머리 등 신체의 일부를 **때린**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2-1. 여러분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없다'에 V한 학생은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① 모르는 사람              ② 같은 학교 친구              ③ 같은 학교 선·후배              ④ 다른 학교 학생  
 ⑤ 학교주변 청소년              ⑥ 학교주변 성인              ⑦ 기타 : \_\_\_\_\_
3. 최근 1년 동안 나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선·후배 등 두 명 이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3-1. 여러분에게 집단따돌림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없다'에 V한 학생은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① 모르는 사람              ② 같은 학교 친구              ③ 같은 학교 선·후배              ④ 다른 학교 학생  
 ⑤ 학교주변 청소년              ⑥ 학교주변 성인              ⑦ 기타 : \_\_\_\_\_
4. 최근 1년 동안 나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선·후배 등과 함께 누군가를 따돌림 **시킨**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4-1. 여러분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한**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없다'에 V한 학생은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① 모르는 사람              ② 같은 학교 친구              ③ 같은 학교 선·후배              ④ 다른 학교 학생  
 ⑤ 학교주변 청소년              ⑥ 학교주변 성인              ⑦ 기타 : \_\_\_\_\_
5. 최근 1년 동안 나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선·후배, 학교주변 청소년, 성인으로부터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5-1. 여러분에게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없다'에 V한 학생은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① 모르는 사람              ② 같은 학교 친구              ③ 같은 학교 선·후배              ④ 다른 학교 학생  
 ⑤ 학교주변 청소년              ⑥ 학교주변 성인              ⑦ 기타 : \_\_\_\_\_
6. 최근 1년 동안 나는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동학년, 선·후배, 학교주변 청소년, 성인 등에게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6-1. 여러분에게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없다'에 V한 학생은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① 모르는 사람              ② 같은 학교 친구              ③ 같은 학교 선·후배              ④ 다른 학교 학생  
 ⑤ 학교주변 청소년              ⑥ 학교주변 성인              ⑦ 기타 : \_\_\_\_\_

II. 신체적 폭력 **발생원인**에 대해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유무와 관계없이 칸에 V표시해 주십시오.

| 문<br>항                                        | 매<br>우<br>그렇다<br>1 | 조<br>금<br>그렇다<br>2 | 조<br>금<br>아니다<br>3 | 전<br>혀<br>아니다<br>4 |
|-----------------------------------------------|--------------------|--------------------|--------------------|--------------------|
| 1. 피해 학생이 건방지게 행동하는 등 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                    |                    |                    |
| 2.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                    |                    |
| 3. 방입, 과잉보호, 체벌 등 가해 학생 부모의 양육방식 때문이다.        |                    |                    |                    |                    |
| 4.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
| 5.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                    |                    |                    |                    |
| 6. 폭력을 미화하는 대중 매체 때문이다.                       |                    |                    |                    |                    |
| 7. 술집, PC방, 대화방 등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이다.            |                    |                    |                    |                    |
| 8.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가해 학생의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                    |                    |                    |                    |
| 9. 가해 학생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이다.                 |                    |                    |                    |                    |
| 10. 성적저하, 가정환경 등 가해 학생이 열등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                    |                    |                    |
| 11. 사소한 감정 때문이다.                              |                    |                    |                    |                    |
| 12. 피해 학생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

III. 집단따돌림 **발생원인**에 대해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유무와 관계없이 칸에 V표시해 주십시오.

| 문<br>항                                   | 매<br>우<br>그렇다<br>1 | 조<br>금<br>그렇다<br>2 | 조<br>금<br>아니다<br>3 | 전<br>혀<br>아니다<br>4 |
|------------------------------------------|--------------------|--------------------|--------------------|--------------------|
| 1. 피해 학생이 잘난 척하는 등 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                    |                    |                    |
| 2. 따돌림 당한 피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                    |                    |
| 3. 방입, 과잉보호, 체벌 등 가해 학생 부모의 양육방식 때문이다.   |                    |                    |                    |                    |
| 4. 집단따돌림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
| 5. 따돌림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                    |                    |                    |                    |
| 6. 폭력을 미화하는 대중 매체 때문이다.                  |                    |                    |                    |                    |
| 7. 술집, PC방, 대화방 등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이다.       |                    |                    |                    |                    |
| 8. 가해 학생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                    |                    |                    |                    |
| 9. 가해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                    |                    |                    |
| 10.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                    |                    |                    |                    |
| 11. 피해 학생이 공부나 얼굴 등 잘난 척하기 때문이다.         |                    |                    |                    |                    |
| 12. 피해 학생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                    |                    |                    |                    |

IV. 성 폭력 발생원인에 대해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유무와 관계없이 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문<br>항                                  | 매<br>우<br>그렇다<br>1 | 조<br>금<br>그렇다<br>2 | 조<br>금<br>아니다<br>3 | 전<br>혀<br>아니다<br>4 |
|-----------------------------------------|--------------------|--------------------|--------------------|--------------------|
| 1. 피해 학생이 야한 말과 행동 등 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                    |                    |                    |                    |
| 2. 성 폭력 피해 학생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                    |                    |                    |                    |
| 3. 방입, 과잉보호, 체벌 등 가해 학생 부모의 양육방식 때문이다.  |                    |                    |                    |                    |
| 4. 성 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
| 5. 성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                    |                    |                    |                    |
| 6.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대중 매체 때문이다.              |                    |                    |                    |                    |
| 7. 술집, PC방, 대화방 등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때문이다.     |                    |                    |                    |                    |
| 8. 가해 학생의 성충동 때문이다.                     |                    |                    |                    |                    |
| 9. 가해 학생 또래 집단의 부정확한 성지식, 성정보 때문이다.     |                    |                    |                    |                    |
| 10. 가해 학생의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 채팅 때문이다.         |                    |                    |                    |                    |
| 11. 남·여 간의 사회화 과정 차이와 성 역할 분담 차이 때문이다.  |                    |                    |                    |                    |
| 12. 남·여 간의 불평등한 권력과 힘의 관계 때문이다.         |                    |                    |                    |                    |

V. 신체적 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 문<br>항                                         | 매<br>우<br>효과적<br>1 | 효<br>과<br>가<br>크<br>다<br>2 | 효<br>과<br>가<br>적<br>다<br>3 | 효<br>과<br>가<br>매<br>우<br>적<br>다<br>4 |
|------------------------------------------------|--------------------|----------------------------|----------------------------|--------------------------------------|
| 1.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                    |                            |                            |                                      |
| 2. 신체적 폭력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                    |                            |                            |                                      |
| 3. 신체적 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                    |                            |                            |                                      |
| 4. 교내 신체적 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                            |                            |                                      |
| 5. 교내 신체적 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                            |                            |                                      |
| 6. 신체적 폭력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                            |                            |                                      |
| 7. 신체적 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                    |                            |                            |                                      |
| 8. 학교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담당학교를 방문한다.              |                    |                            |                            |                                      |
| 9. 학교교육이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                    |                            |                            |                                      |
| 10.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위주의 대응책을 강화한다.            |                    |                            |                            |                                      |
| 11. 학교주변의 PC방, 단란주점, 대화방 등 유해환경을 없앤다.          |                    |                            |                            |                                      |
| 12.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                            |                            |                                      |

VI. 집단따돌림 **대처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 표시해 주십시오.

| 문<br>항                                        | 매우<br>효과적<br>1 | 효과가<br>크다<br>2 | 효과가<br>적다<br>3 | 효과가<br>매우<br>적다<br>4 |
|-----------------------------------------------|----------------|----------------|----------------|----------------------|
| 1.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                |                |                |                      |
| 2. 집단따돌림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                |                |                |                      |
| 3.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                |                |                |                      |
| 4. 교내 집단따돌림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                |                |                      |
| 5. 교내 집단따돌림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                |                |                      |
| 6. 집단따돌림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                |                |                      |
| 7.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                |                |                |                      |
| 8. 따돌림의 아픔이 가해 학생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                |                |                |                      |
| 9. 교사가 학급을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                |                      |
| 10. 교내 순찰을 강화한다.                              |                |                |                |                      |
| 11. 소집단 활동을 폭 넓게 활용한다.                        |                |                |                |                      |
| 12.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을 동아리 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시킨다.      |                |                |                |                      |

VII. 성폭력 **대처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

| 문<br>항                                        | 매우<br>효과적<br>1 | 효과가<br>크다<br>2 | 효과가<br>적다<br>3 | 효과가<br>매우<br>적다<br>4 |
|-----------------------------------------------|----------------|----------------|----------------|----------------------|
| 1.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을 갖는다.                         |                |                |                |                      |
| 2.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                |                |                |                      |
| 3. 성 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                |                |                |                      |
| 4. 교내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                |                |                      |
| 5. 교내 성폭력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                |                |                      |
| 6. 성폭력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                |                |                |                      |
| 7. 성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건전한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                |                |                |                      |
| 8. 가해 학생이 성적인 행동을 할 때 '하지 말라' 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                |                |                |                      |
| 9.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                |                |                |                      |
| 10. 성폭력을 당하려고 할 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                |                |                |                      |
| 11. 피해 학생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                |                |                |                      |
| 12. 성 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                |                |                |                      |